



토론회 자료집

모두를 위한 화장실, 어떻게 만들까

성별이분법적이고 비장애 성인 중심적인
화장실의 재구성

2019년 5월 18일(토) 오후 1~4시

서울시NPO지원센터

토론회 자료집
모두를 위한 화장실, 어떻게 만들까

주최

한국다양성연구소
Diversity Korea

후원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목 차

발제1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는 가능하다 4

-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발제2

공간, 이동, 위생에 대한 소수자들의 재구성이 가능할까? 14

- 나영정(타리) 퀴어 활동가, 장애여성공감 이사/정책연구원

발제3

베어리어 프리(Barrier Free) 화장실의 구성요소 20

- 심지선 전북장애인인권연대 활동가

발제4

화장실이라는 어려운 공간 36

- 루인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연구원

발제5

성별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조건과 해외의 사례들 . 44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 제 1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는 가능하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우리가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점차 그런 사회에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우리들은 그런 세상을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 이 토론회를 준비했다.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라고 할 때,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거창하게 들려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부터 하나 하나 바꿔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속해 있는 공간들부터 생각해 보기 위해 매일 마주하는 나의 일상에서 대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내가 지금 이용하는 이 시설, 서비스, 제도는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시작이다. 본인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더라도, 이 공간에서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이 공간을 전혀 이용할 수 없거나 소속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없는지 알아야 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 사람의 삶은 수많은 공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공간들 속에 포함, 수용, 용인, 인정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고 소외, 배제, 차별, 억압, 혐오, 폭력을 경험하는 존재인가의 문제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구성하고 사회에서의 위치를 결정한다.

우리는 오늘 살면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공간들 중에서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반드시 경험 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 모델은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일까? 성별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비장애인 중심적이고 성인 중심적인 화장실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최근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실에 대한 욕구와 필요는 장애인, 트랜스젠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 의해서 강력하고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과 트랜스젠더 그리고 여성이 원하고 필요한 세상은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맞닿아있다.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성중립화장실, 무장애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 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시간을 통해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가치와 실제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며 오늘도 모두에게 편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해 진일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어느 화장실로 갈까?



사회적 특권과 억압

고민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의 의미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서울도서관
장애인 자료실

문을 당겨서
열어야 한다

유아용 변기/변기커버



백화점, 아울렛,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생기고 있는 가족화장실





서울시청사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 1층
어린이화장실

내부 구성물이 완전히 같아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두 칸으로 만들면 어떨까?



인권재단 사람

화장실을 두 칸만
만들 수 있을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모델들

다섯 개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김포공항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 2층 화장실



공용화장실? 모두의 화장실? 그냥 화장실?



성별로 구분된 화장실과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는가?



베어리어 프리(Barrier Free) 화장실의 구성요소



베어리어 프리(Barrier Free)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발 제 2

공간, 이동, 위생에 대한 소수자들의 재구성이 가능할까?

나영정(타리)

퀴어 활동가, 장애여성공감 이사/정책연구원

1.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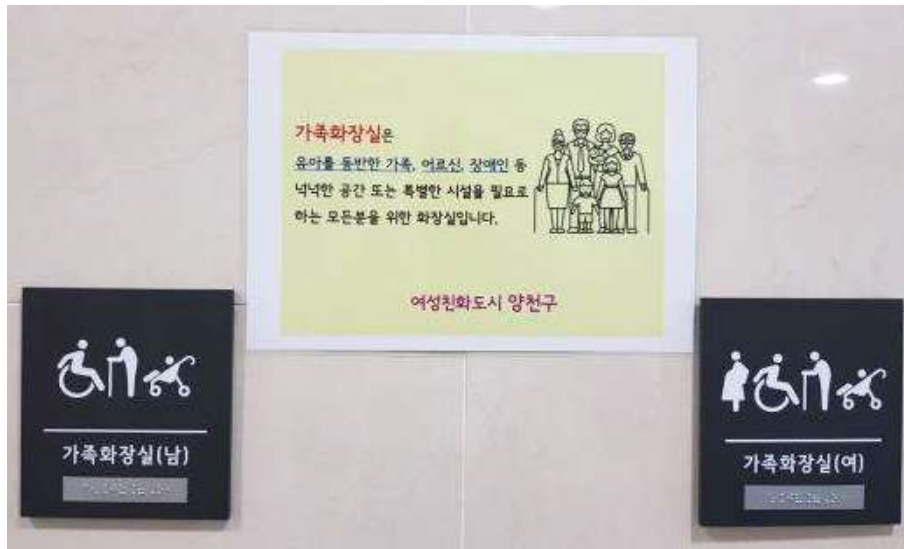
“노키즈존, 노퀴어존, 가부장주의적 집단, 난민반대시위, 농성장 강제철거, 이런 곳들에서 쫓겨나는 것은 단지 몇몇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곳에서 금지되는 것은 단지 특정한 행위들이 아니다. 여기서 쫓겨나는 것,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 평등한 삶 자체, 서로 다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다. 쫓겨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리 하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그곳의 원리와 질서를, 그 공간 자체를 새로이 만들어 내는 일이다.”¹⁾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논의는 도시권,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관한 논의라는 점에서 출발해보려고 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1968년 프랑스 전역을 휩쓴 시위에서 널리 사용된 인기 구호 중 하나였으며, 이후에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도시사회운동의 지향점이 되었다. 도시권 개념은 도시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요구와 권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도시 공간이나 도시 생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낳았고, 국가 중심 시민권(citizenship)개념의 재구성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등 세계 각국의 도시 운동과 도시정치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²⁾

소수자들은 도시의 공간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향유하고, 재현되고 있는가? 마땅한 자격을 누리면서도 은폐되지 않고, 계급적 억압에 저항하며 이성애시스젠더 중심주의와 정상신체중심주의, 인종주의에 대해 도전하면서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장애인 화장실 모니터링 사업³⁾을 하는 우리의 활동이 법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권력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운동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노동자가 쉬거나 밥을 먹는 장소가 되거나 혹은 청소도구들이 보관되는 장애인 화장실의 문제는 화장실 용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문제시되지 않고 그 건물에서 누가 공통적으로 소외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한다. 장애인 화장실을 다목적 화장실, 가족 화장실로 바꾸어나가는 흐름에 대해서 꺼림직한 것은 장애인보다 어린이를 먼저 세움으로써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세금 낭비, 공간 낭비)을 바꾸지 않고 비껴서려는 위험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때 내세워지는 어린이는 어린이 그 자체가 아니라 이성애정상가족규범의 상징으로서, 성별이 뒤섞여도 안전하고 여전히 정상적인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화장실을 안정화한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장애인이 청소도구와 공존하는 것이 왜 더 모욕적인지 말하기 어려워진다.



- 1) 안팎(2019), ‘노키즈존, 노퀴어존 그리고 민주주의: 어린이를 쫓아내는 사회, 소수자를 쫓아내는 사회’, [위커스] 53호.
- 2) 강현수(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권.
- 3)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2014),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자료집].



장애인이 도시설계에 참여하고, 공중화장실에 이용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아니라 휠체어와 활동을 보조하는 타인의 존재가 정당하게 공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장실의 기능성, 효용성 등의 능력을 높이는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화장실의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많은 장애인은 이미 화장실을 이용해왔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공중화장실은 도전받고 권리로 변화해왔다. 따라서 모두의 화장실을 만드는 문제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주의적이고, 정의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모두의 기능에 기능에 대처하는 기술의 역량이 아니라, 모두가 도시에 참여할 권리로서 상상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단지 자본의 투입, 과학기술의 발달에 사람들이 종속되지 않고, 아직 사회에 등장하지 못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누군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이다. 또한 기능의 편리함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정상화하는 방향을 향할 때 정당화되기 쉽지만 근본적으로는 배제를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할 때 빛을 발한다. 젠더비순응자들을 위한 화장실에 대한 논의는 왜 기능의 편리함으로 포함되지 않는가? 이는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미 정상성의 지평 안에서 한정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지평을 넓히기 위한 민주주의와 정의가 핵심이다.

2. 이동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골방에 갇혀 살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산속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공중화장실 접근의 문제는 전혀 장애인의 이슈가 아니었다. 과거 주류사회에 통합된 엘리트/경증의 장애인들은 사실 일부러라도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한 문제제기 자체가 핸디캡이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으로 패싱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소수자가 도시의 공간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향유하고, 재현되기 위해서는 이동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집을 소유하고,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이전에 이동은 훨씬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이다. 장애인이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얼마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의 권력 구조안에 얼마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 문제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그들은 자신의 집이나 특권화 된 장소에서 불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간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집단이 이동할 권리를 가질리는 만무하다. 집을 점유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도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동할 권리는 신체 기능이 아니라 어떤 몸이 어떤 곳에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권력과 결부되고, 어떤 몸이 이동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수단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⁴⁾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제와 격리의 억압과 참여의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만명의 시민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제공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는 촛불집회가 사회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가치판단에 따른 정치적인 행위였다 (물론 때로는 압도적인 숫자가 사회공공성 자체를 선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도시에서의 참여, 평등, 자유,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계급, 성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인종이 배제되고 있는가, 이들이 이동하는 중에 어떤 문제를 겪는가의 문제와 상당부분 겹친다. 따라서 강남역 사건 이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성의 안전이며, 잠정적으로 젠더비순응자나 장애인이 뒤로 밀리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거나, 안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시작하는 성별중립화장실 운동은 잠시 침묵해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율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다시 안전의 문제를 공간의 분리와 기능, 규제 문제로 축소시킨다. 가해자는 사람이고, 가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권력은 젠더권력이며, 이것을 산업화하고 자본을 불리는 이들은 소수자들의 사회참여와 평등추구를 가로막는 지배권력이다.

장애인들의 장애인화장실 요구, 젠더비순응자들의 성중립화장실 요구는 도시의 정상신체중심성과 이성애시스젠더중심성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화장실문제이기때문에 배려, 권리이전의 욕구, 저항이전의 생존으로 주장하는 것은 왜 이러한 도전들이 가로막히는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젠더 권력에 대한 도전은 어떻게 나란히 놓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위생에 관한 특정한 입장과 연관된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트랜스젠더, 장애인, 여성들 사이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위생

최근 홍제천을 걷다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중년/남성/일용직 노동자'풍'의 사람을 보았다. 그는 낮부터 취해있었고 옆에는 같이 취한 동료가 조금 떨어져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동안은 거리낌없이 원하는 곳에서 소변을 낼 수 있는 권력에 치를 떨었고 욕이라도 한마디 안하면 지나가기 아쉬웠다. 서서 소변을 낼 수 있는 신체적 구조도 권력이고, 저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서있으면서도 뒤에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평한 마음도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날은 그에게서 어떤 특권도 느껴지지 않았다. 소변을 뿌리는 그 순간에만 그에게 특권이 있었다고 말하면 정확한 분석일까? 잘 모르겠다. 그는 100M만 걸어가면 나오는 공중화

4) 강상구는 걸기와 자전거 타기가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의 석유중심의 산업체제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강화, 양극화, 자본주의적 소비의 극단화도 자동차 중심의 이동체제로의 이행과 일치한다. 강상구(2019), 걸기만 하면 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 녹색기본소득에 관하여, 루아크.

장실을 찾지 못한 비교양인이고 화장한 거리에서 누구의 환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술취한 하층 계급 남성이었다(물론 집에서는 어떠한 관계에서 어떠한 권력을 부릴지 단언할 수 없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범자로서 경계된다. 음경을 꺼낸 것 자체로 성폭속 위반 단속을 당할 수도 있으나 성적 만족의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음경을 꺼냈다가 기소되었던 검사처럼 자신을 변호할 수도 없을 것이다. 위생의 문제는 어떻게 폭력이나 범죄가 되는가? 여기에는 어떤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가?

살면서 경험한바로는 그렇게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음경은 본적이 없다. 아마도 너무 작거나 조금만 꺼냈을 것이다. 대부분은 손에 소변을 묻혔으나 씻을 곳이 없으므로 바지에 대충 문질러 닦고 버스에 올라 손잡이를 잡았을 수도 있다. 그 버스 손잡이는 누구에게나 꺼림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타인과 공유하는 모든 장소와 물건들에 그런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통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가 더럽다, 혐오스럽다고 느끼고 인식하는 특정한 누군가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대나 전제에 가깝다. 그리고 소수자들이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고 표백당하는 논리와 공명한다.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나는 현대의 의료적 진보를 거부하는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공중보건, 위생의 관념은 도시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력이 작동하는 오래된 방식이었다.

깨끗한 화장실은 안전하고 평등한 화장실인가? 그 깨끗함은 어떤 방식의 청소를 통해서 유지되는가? 화장실에서의 청결함은 1차적으로 배설물(소변, 대변, 생리혈, 체액, 침, 콧물 등)의 관리일텐데 이러한 배설물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배설물 자체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누구의 것으로 상상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분리되기 어렵다. 혐오의 감정은 신체에서 빠져나온 물질에 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한 것으로 연결된다.⁵⁾ <어쩌면 이상한 몸>에서 김상희는 신변처리를 하는 활동지원사의 노동이 신체의 온갖 내장과 혈액, 체액을 다루는 의료인의 노동보다 천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활동지원사의 노동이 보편적인 환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삶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는 위생에 대한 관념의 전제를 돌아보고, 더러움이 어떤 존재와 행위에 할당되어 왔는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습과 규범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남자들은 화장실을 너무 더럽게 써서 같이 쓰기 싫다”는 그 마음의 복잡한 결들에는 꽤 토론할 것이 많다. 이 마음은 단지 서서누기 때문에 소변을 튀기는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물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나는 누구와 어떤 공간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러가지 가치를 담기 마련이다. HIV 감염인의 기숙사 입소를 거부하는 대학, 예멘 난민에게 세명이상 모여서 다니지 말라고 말한 법무부, 지하철 리프트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장애인, 서울로7017에 놀기금지조항을 만들었다가 철회한 서울시의회, 강제퇴거 당하는 세입자와 노점상, 도시미관을 이유로 납치되어 시설에 수용되었던 빈곤한 사람들, 낮에는 길거리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는 보광동 트랜스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도시 위생의 사회적 관념으로 인해 ‘치워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화장실 문제를 겪는다. 존재가 아니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빈곤문제나 질서문란으로 재현되고 환원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쉽게 비인간화된다.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청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장소가 공중화장실로 지목될 때 이들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망치는 이

5)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참조.

들로 다시 재상상될 것이다. 이미 남녀구분이 정상화된 상태에서 여성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젠더비순응자들, 임산부, 노숙인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상상될 때 그것은 모두의 화장실이 된다.

4. 나가며

모두의 화장실 문제는 어떤 정체성에게 어떤 공간을 할당하고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로 축소되면 곤란하다. 이미 표백된 공중화장실에 누군가를 포용하는 문제로 축소될 수도 없다. 이동을 하면 뒤섞이고, 뒤섞이면 성격은 변화한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공적 공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잘해봐야 관리매뉴얼이다.

도시, 공적 공간에 대한 모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 질서와 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구상이 함께 가야 한다. 비싼 건물 중심으로 화장실의 위생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 화장실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 도시의 공간을 소유하거나 점유함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용 자격이 되는 것, 어떤 공간에는 어떤 규범과 질서를 체현하고 있는 신체에게만 입장이 허용되는 것, 주류질서와 불화하는 존재에게 불화의 책임을 돌리는 것, 그래서 화장실 이용을 위한 부담과 비용의 책임을 불화의 당사자에게 매기는 것. 그것이 문제다.

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이 구조가 전복되지 않는 한 안전한 화장실을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피해자다움과 분리되기 어렵다. 피해자다움, 미소지니는 주지하듯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성적 규범 위반자들을 여성화장실에서 몰아낸다고 해서 젠더폭력과 카메라가 근절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위험의 존엄성을 주장해왔다. 화장실에서 위험을 느끼는 누구도 자유와 평등 그 무엇도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하길 강요당한다면 평등은 이를 수 없다. 공중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또한 위험의 존엄성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실패의 복구와 그에 따른 비용 지불의 책임은 사회와 국가에 있다. 그래야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권리가 된다.

발 제 3

베어리어 프리(Barrier Free) 화장실의 구성요소

심지선

전북장애인인권연대 활동가

1. 들어가며

"밥은 사람들 앞에서 먹는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하루 정도 굶어도 괜찮다. 오줌은 다르다. 급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누 수는 없다. 미리 누 수도 없다. 조금씩 나눠 누는 걸로 상황을 모면하지도 못한다. 내 지인은 모든 권리 가운데 '오줌권'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단언한다".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발췌

대소변을 볼 권리를 빼앗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소변을 볼 공간이 있어도 잠겨 있거나 좁고 청소 도구들로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소변을 오래 참을 수 없는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옷에다 볼일을 봐버린 난감한 상황, 전등과 출입문 개폐 버튼이 높아서 들어갈 수 없어 다른 도구를 이용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해서 들어가 볼일을 봤지만 물내림 버튼이 등뒤에 있어서 몸을 돌리기 힘들고 손에 힘이 부족해 변기물을 못 내리고 나와야 하는 민망한 상황, 휴지걸이가 높이 있어서 뒤처리를 못하고 나와야 하는 찝찝한 상황, 센서가 작동돼서 자동으로 변기물이 내려 가는데 변기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계속 작동되는 센서 때문에 변기물이 흘러 넘쳐도 재빨리 피하지 못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오물이 몸속까지 침투하고, 옷이며 바닥까지 흥건하게 변기물이 쏟아져도 비상벨이 높이 있어 누르지도 못해 그저 죽고싶을 만큼 비참한 상황. (실제 사례)

실제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제대로 화장실을 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튼의 높이와 위치, 대소변을 보는 공간의 넓이, 부속물의 위치와 높이 등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인권선언과 편의증진법, 배리어프리 등 법과 제도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문제점들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 “모두를 위한 화장실” 그 모두에는 장애인도 포함되므로 장애인도 이용하기 편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 인권

1) 2008 장애인 인권선언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차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평등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인 시민·정치적 권리, 사회·문화·경제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 및 정보접근의 권리, 교육과 노동의 권리, 가족 및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법률지원과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않을 권리, 멸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모든 정책에 참여할 권리 등을 지닙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베어리어 프리

[barrier free]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입니다.

3. 베어리어 프리 인증제도

(목적)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 및 지역 등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출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1) 2015년 편의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13문항 연구 조사 후 의견서 제출

2) 2015년 베리어프리 심사 기준 개선할 내용

12문항 연구 조사 후 의견서 제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하우스를 설치 후 테스트 해보는 것이지만 여건상 불가능하여 실제 크기의 면적과 부속물을 그려서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사용가능여부와 부속물의 효율적 배치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3)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 사례

보급형 스쿠터로 전장이 1.4m 전폭 0.68 한 번에 돌아 나오려면 3.2m가 필요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테스트한 결과 2.0 x 2.1m에서 전후진을 4회 반복해서 돌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보급형 전동 휠체어로 전장1.13m 전폭0.65m 한 번에 돌아 나오려면 1.6m가 필요합니다.

스쿠터로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돌아 나오는 건 불가능하군요



◀ 의료용 스쿠터 나드리 디럭스 4W ▶

· **제원표**

전장	1,400mm	최대속도	15km/h
전폭	668mm	최대주행거리	35km(전진)
중량	135kg(배터리포함)	배터리	55AH
등판각도	10도	출전기	외장형 5A
타이어	13"(전,후)	색상	타타늄 실버
회전반경	1,600mm	승차하중	135kg

소비자가 : 2,3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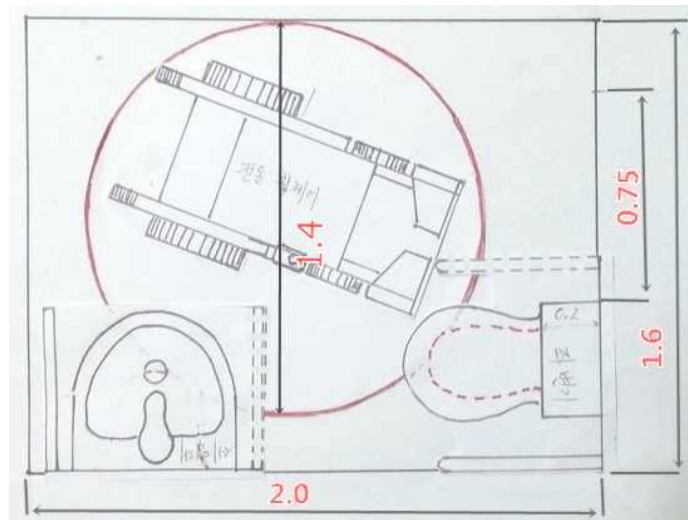


1)버디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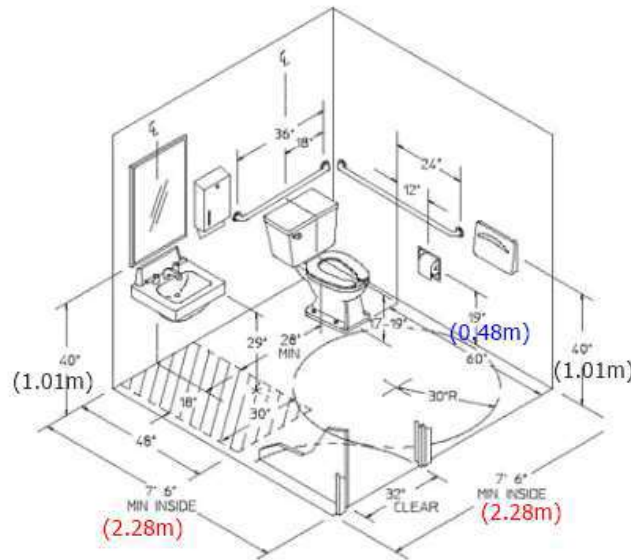
전장*전폭*전고	1,130mm x 660mm x 1,270mm
제품속도	10km/h
제품중량	102kg (배터리 포함)
등판각도	10도
이용하중	135kg

주행거리	30km
회전반경	810mm
배터리	12V, 55Ah
타이어	구동휠(14"), 조향휠(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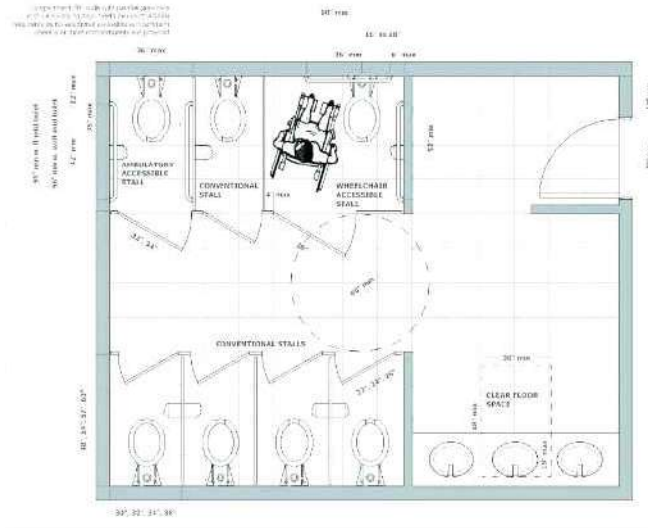
▲보급형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스쿠터인 경우 들어갈 수는 있으나 회전이 불가능하고 전동휠체어는 세면대 없이 회전할 수 있으나 세면대를 넣을 경우 회전하기 힘들며 법적인 활동공간인 1.4미터×1.4미터를 침범합니다. 세면대는 요루 장루 장애인들과 그 외 장애인들의 신변처리를 위해 화장실 내에 설치가 필수입니다.



미국 ADA법에 의한 도면입니다. 우리나라 BF 최우수 면적보다 넓습니다. (BF 최우수 바닥면적 2.0 X 2.1m) 휴지걸이가 낮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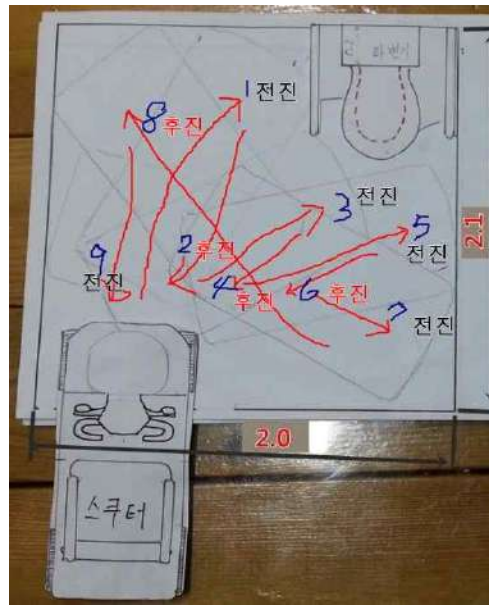
ADA법에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BF인증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건의
 변기 활동공간 : 스쿠터 사용가능여부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칸막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 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2.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1.6
일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1.4m이상, 깊이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1.4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로 설치된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화장실크기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진입	회전	진입	회전	진입	회전
폭1.4m, 깊이 1.8m	○	⊗	○	⊗	△	⊗
폭1.5m, 깊이 1.8m	○	○	○	△	△	⊗
폭1.5m, 깊이 1.9m	○	○	○	○	○	⊗
폭2.0m, 깊이 2.1m	○	○	○	○	○	△
폭2.5m, 깊이 2.3m	○	○	○	○	○	○

‘△’표시는 문의 위치와 부속물의 설치 및 부속물의 위치에 따라 진입과 회전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폭 2.0 X 깊이 2.1m 스쿠터 회전에 대해 한국지체협회에서 실험한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공개된 한국지체협회에서 실험한 자료(동영상)를 토대로 재구성 해보았는데 4번 이상 전후진을 반복해서 회전해서 나왔습니다. 유아변기조차 장착하면 회전 불가능합니다. 자가용으로 4번 이상 전후진을 반복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의 부속물 배치도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사용의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면적 폭 2.5m 이상, 깊이 3.0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c형 경우 0.8m 데 출입문이 0.9m 일 경우 양쪽으로 10cm 여유밖에 없어 출입시 문의 파손 우려가 높아 최소 1.0m이상 되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규격〉



구분	형태 분류		
	A형	B형	C형
전장길이(L0)	1200 mm	1300 mm	1400 mm
폭	650 mm	700 mm	800 mm

2) 이용자 조작설비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 팔걸이 높이 0.6m 전동 휠체어 팔걸이 높이0.7m (제품마다 다소 차이 남) 팔을 올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고려0.7~0.9m 적당하며 곤란할 경우 1.m로 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이 마크가 붙어있는 곳만 0.9~1.2m 최대 1.4m이고 건설법적으로도 높이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모든 스위치 높이는 1.2~1.4 m입니다.



높이 1.4m는 어린이에게 발판이 필요한 높이입니다. 누군가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마크 붙은 곳만 이용해야 하나요? 팔을 올릴수 없는 장애인은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들어 갈수는 있는 데 붙은 켜지 마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진은 벽과 문이 직각이고 휠체어 발판이 문에 닿아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작성이 문 가까이 있는 경우 몸을 앞으로 숙여서 사용하기 불편하고 문이 닫히면서 휠체어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전면부에서 몸까지 거리를 고려해 문에서 0.6~0.8m 떨어져야 합니다.



핸드 드라이어나 휴지걸이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위치가 제각각여서 휠체어에서 사용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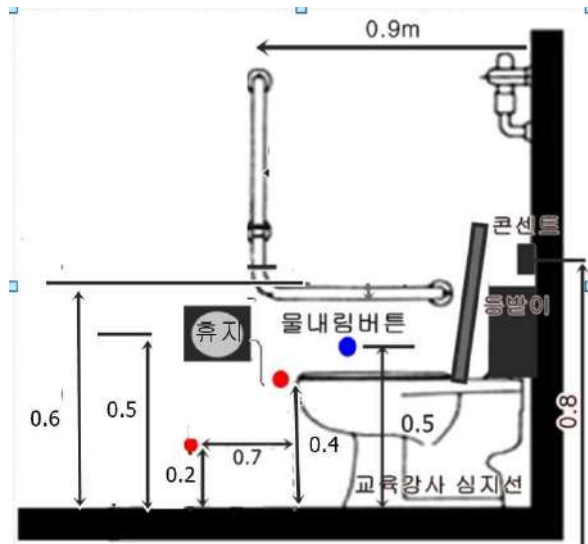


전신 장애인등을 위한 접이식 간이침대가 필요합니다. 누워서 신변처리를 할 때 필요합니다.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기에 앉아서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 0.4m이며 변기에서 앞으로 넘어질 경우 전면 0.7m 높이 0.2m에 설치해야 합니다.





휴지걸이는 위치와 높이가 제각각이고 높이 설치된 곳이 많아 팔을 올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변기 전면부에서 휴지 배출구 중심까지 높이가 0.5m가 적합합니다.



수동으로 물을 내려 달라는 문구입니다. 수동장치가 변기 뒤에 있어 허리를 못 돌리는 장애인과 팔에 힘이 없는 장애인들에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변기 중앙부 높이 0.5m부분에 물내림버튼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물내림 장치는 2005년 이전의 것은 바닥에 있거나 벽에서 누르는 식이었는데 2005년 이후로는 좌변기에서 일어나면 자동 적으로 물 내림이 가능하도록 센서를 장착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전주역만 정상작동하고 군산역, 병원, 극장, 대형마트, 순천역, 영등포역, 용산역, 극장, 서울시청 등이 고장이거나 건전지 교환식인데 제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동 불능이어서 수동으로 누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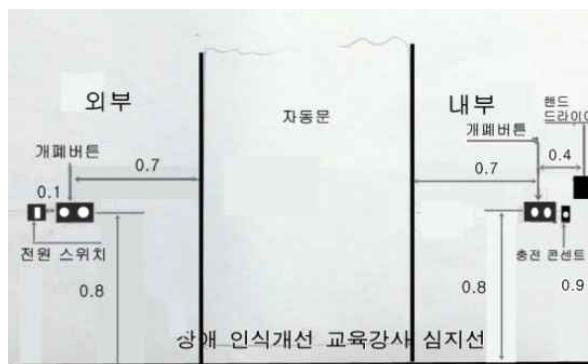
장루 요루 장애인 신변처리 세척변기입니다. 오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고 세척에 용이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가 없어 난처해 하시며 어쩔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장애인분을 보고 비데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bf 심사에서는 비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 건물이거나 개인 건물일 경우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양쪽 손으로 사용이 가능한 비데가 필요합니다. 왼손잡이거나 오른손이 불편할 경우 편리한 조작을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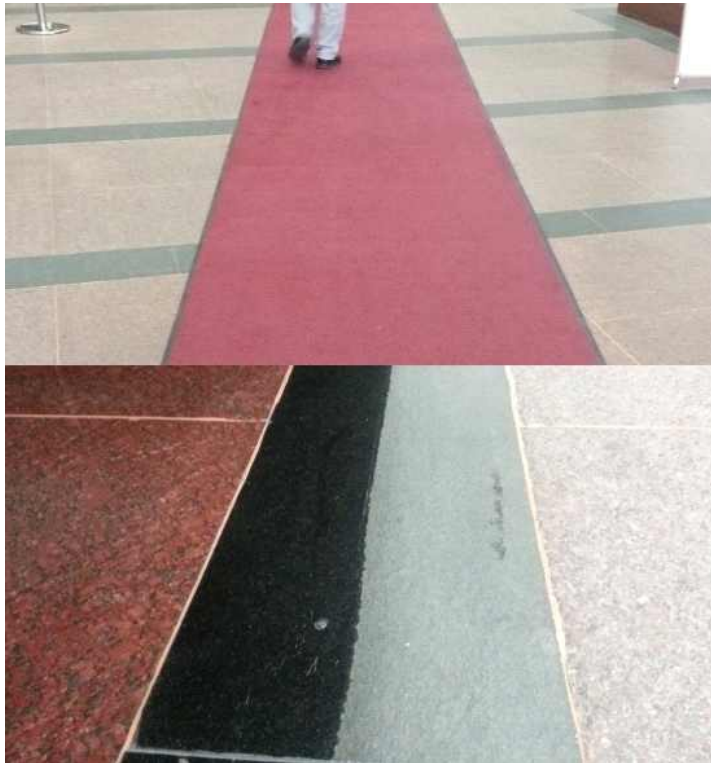
3) 재질과 마감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화장실에서 목발을 사용하시는 분이 나오실 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고 바닥타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이룸센터 장애인개발원 로비입니다. 광택나는 타일이었지만 미끄럽지 않게 표면을 깎아 내어 회색이며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발 제 4

화장실이라는 어려운 공간

루인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연구원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이야기로 시작하자. 2007년 1월 인권활동가대회에 처음 참가했던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령이)의 활동가들은 행사장에서 그 동안 진지하게 논의한 적 없던 문제에 부딪혔다. 인권활동가대회 준비팀은 참가자가 행사장에 도착하면, 큰 강당에 참가자 모두가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서너 시간 정도 진행한 뒤 방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 사실은 대회 준비팀에 참가한 지령이 활동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행사장에 도착하고 얼마 안 지나 깨달은 사실은, 방이 배정되기 전까지 지령이의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는 점이었다. 사실 트랜스젠더퀴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도 없었다. 혼자 사는 집의 화장실이 아닌 이상, 트랜스젠더퀴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상상력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령이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회의를 하거나, 단체 설립 후 운영 회의를 한 뒤 뒷풀이 삼아 술집에 간 날도 그랬다. 한 ftm/트랜스남성인 활동가가 ‘남자 화장실’에 갔다가 자신이 이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결국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것을 문제 삼으며 술집 주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던 지령이 활동가 모두가 그 불편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 불편에 공감했지만(그래서 나는 가급적 음료를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화장실 이용을 피하고자 했다) 화장실 이용이 야기하는 불편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려 하지는 않았다. 화장실 이용이 주는 불편함은 트랜스젠더퀴어라면 으레 감수하는 여러 불편함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렇기에 인권활동가대회에 참가했던 그날은 차라리 좀 이상한 날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중간중간 화장실을 이용한 지령이의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들은 각자의 불편함을 평소처럼 각자의 불편함으로 감내할 수도 있었다. 어차피 어딜가나 겪는 일상이니 새로울 것 없고, 인권활동가대회에서 만든 건물도 아니니 달리 활동가대회 준비팀을 탓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날은 그것을 지령이 활동가끼리 공유했고, 어째서인지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대회 준비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준비팀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화장실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했고, 참가자 모두가 논의할 의제로 만들었다.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날 그 자리에 참가한 인권활동가들은 우리의 불편에 동의했고, 2층은 성별 분리 화장실로 이용하고 3층은 화장실의 성별 표기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것은 무척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 지령이가 화장실을 트랜스의 주요 의제로 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였고, 지금처럼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젠더 정치가 공론화되어 있던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몇 해 전 다른 행사장에서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행사에 mtf/트랜스여성이 참가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그 논쟁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그날 그 자리에 있던 활동가 모두가 지령이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날의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인권활동가의 인권 감수성과 윤리적 태도가 만든 것이리라.

나는 그날의 사건이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장실 논쟁의 시초라거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지령이는 계속해서 트랜스젠더퀴어의 화장실 이용 문제 혹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젠더 정치학을 문제 삼았지만, 화장실 문제는 지금처럼 폭넓은 관심을 받는 주제라기보다 지령이가 논하는 의제 중 하나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지령이 해체 이후

한동안 이 의제는 적극 논의되지 않았다.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나 연구자 개개인이 특강 같은 자리에서 발언을 할 때만 회자되는 정도였다. 다른 한편, 2007년의 사건은 지난 몇 년간 화장실의 젠더 정치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해진 이후 다시 발굴된 사건에 가깝기도 하다. 내가 2007년의 일로 이 글을 시작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경험이 공적 논쟁의 장, 문제거리, 사회적 의제로 구성되는 방식과 화장실의 젠더 정치가 논의되는 방식의 변화를 말하고 싶어서다.

지렁이 활동가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관련 캠페인과 전시회를 열고, 논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아도 화장실 이용 문제는 이미 많은 트랜스젠더퀴어가 알고 있고 매일 매일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mtf/트랜스여성이 여성보다 남성으로 더 잘 통할 때 mtf/트랜스여성은 여성임에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기 어렵기도 하다. 여성으로 더 잘 통하는 상황일 때도,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시비나 불안으로 여자 화장실 대신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mtf/트랜스여성도 많다. ftm/트랜스남성이 남성으로 더 잘 통하는 상황에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화장실에 소변기만 있고 좌변기가 없을 때 많은 ftm/트랜스남성은 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 한다. 남성으로 더 잘 통하는 외모일 때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ftm/트랜스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아예 없는 것과 같다. 외부 성기 재구성 수술을 하지 않고 호적상 성별 정정을 한 ftm/트랜스남성의 경우, 직장에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좌변기만 이용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몰래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신을 여성이나 남성 어느 쪽으로도 정체화하지 않는 젠더퀴어에게 화장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배신하도록 강요하거나 어느 곳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김혁 감독의 단편 영화 <첫 외출(Going Out)>(2018)은 이 도시의 뻘뻘하게 자리 잡은 건물 어디에도 트랜스가 안전하게/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하나 없는 현실을 포착하며, 트랜스가 외출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란한 일인지를 드러낸다. 외출은 언제나 공중화장실 이용과 결부된 사건이며 그래서 어떤 식의 각오가 필요한 일이다. 많은 트랜스젠더퀴어는 외출했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음료수를 최대한 마시지 않는다. 일부 트랜스젠더퀴어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카페 목록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낯선 장소에 갈 때, 마침 애인이나 화장실 문제를 함께 논할 수 있는 친구가 같이 있다면, 애인이나 친구에게 화장실이 어떤 형태인지, 자신이 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다. 약속 장소 부근에 갈 곳이 마땅한 화장실이 없거나 모를 때 약속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은 트랜스젠더퀴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대소변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가, 방광염에 걸리지는 않는가,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을 때 물을 제때 자주 마실 수 있는가, 그리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는가)인 동시에 트랜스젠더퀴어가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고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외출해서 친구나 지인을 만날 수 있는가, 낯설고 이동 시간이 먼 행사장에 참가할 수 있는가)다. 다른 말로 트랜스가 살고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원은 누구인가와 긴밀하게 얽힌 문제가 화장실 문제다.

하지만 트랜스젠더퀴어가 겪는 이 어려움 혹은 문제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의제, 논의할 가치가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많은 사회적 문제는 빈번하게 개인의 모난 성격 문제로, 사소하고 사적인 불만으로 취급된다. 가정 폭력 문제가 그러하고 여성 혐오가

그러하듯, 장애인 차별이 그러하고 인종 차별이 그러하듯 많은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과정/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투쟁에 앞서, 경험을 모으고, 해석하고, 정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령이 활동가가 인권활동가대회에서 처음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화장실 이용 문제가 트랜스젠더퀴어의 중요하 정치적 의제로 인식되고 발굴되었다는 점은 문제, 차별, 억압은 그 자체로 자명한 사실이 아니라 경험을 모으고, 모은 경험을 해석하고, 이를 정치화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만약 그날 지령이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함께 고민할 의제로 만들지 않았다면 지령이 활동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화장실을 문제 삼았을 지도 모른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화장실이라는 공간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는 12년이 지난 지금 젠더 정치학, 공간 정치학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논쟁적이며 무척 어려운 의제로 구축되고 있다. 12년 전 처음 이 의제를 제기했을 때 그리고 그 후 얼마간 지령이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화장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을 때, 초점은 트랜스젠더퀴어가 겪는 어려움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원 젠더 체제 및 남성과 여성의 신체라고 상상되는 어떤 규범적 몸 형태를 토대로 구축된 화장실은 트랜스젠더퀴어가 사용할 수 없거나 많은 위험과 불안을 감수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이었다. 여성과 남성으로만 구분된 화장실은 트랜스젠더퀴어에게 차별이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트랜스젠더퀴어가 겪는 어려움에 집중했던 초기 화장실 논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이원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가로 논의의 초점이 이동했다. 화장실은 단순히 대소변이라는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화장을 고치는 등의 용도로 쓰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원 젠더 체제로 구축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화장실을 이용할 자격, 즉 젠더 표현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여성’이 남성처럼 젠더를 표현하거나 머리카락 길이가 현저하게 짧을 경우, 그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렵다. ‘남성’이 머리카락 길이가 길고 여성스럽게 행동한다면 마찬가지로 남자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트랜스젠더퀴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비율은 절반 가량이며, 48.1%는 공중 화장실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고 답했다(정현희, 66). 이 자료집에서 공중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은 트랜스젠더퀴어를 논하는 장에서만 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다른 차별 경험을 논하는 장에서, 트랜스젠더퀴어가 아니라도 젠더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젠더 표현을 할 경우, 차별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이들의 화장실 이용 역시 다른 차별 경험처럼 높은 비율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화장실과 같은 이원 젠더 기반의 공간(예를 들어, 쇼핑몰)은 단순히 생리 현상을 해결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할 자격을 먼저 묻는 역할을 하고 이원 젠더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젠더 표현을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화장실의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질문을 제기한다. 누가 화장실과 같은 공간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존재인가, 화장실과 같은 공간을 이용할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어떻게 젠더 실천 방식이 감찰되고 검열되는가. 이런 일련의 질문은 화장실이 여성성과 남성성,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이원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다시 사유하도록 했다. 이 전환은 화장실을 둘러싼 정치에 개입된 존재가 트랜스젠더퀴어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트랜스젠더퀴어와 함께 부치 레즈비언도 불편을 겪는다는 식으로 새로운 존재/범주를 추가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젠더 실천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화장실 의제는 모든 사람이 연루된 의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화장실에 대한 이해의 전환은 화장실을 둘러싼 논쟁이 트랜스젠더퀴어만의 의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제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화장실 의제를 가장 어렵고 논쟁적 문제로 만들었다. 화장실이 지렁이만의 의제, 트랜스젠더퀴어가 겪는 차별의 하나로 이해될 때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의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아이디어에 불편과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화장실이라는 젠더 검열 장치, 몸 규제 장치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규제하고 규범적 몸의 형태를 갖춘 사람만 공적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최근 몇 년 사이 화장실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을 때, 트랜스젠더퀴어만의 의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유이자, 특히 트랜스 운동과 장애 운동이 공동의 운동 의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 구분 없이 만드는 행태를 비판할 때 이것은 장애인의 복잡한 젠더 경험과 범주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성별을 구분하는 장애인 화장실은 활동 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데 이원 젠더 체제로는 화장실 이용의 복잡한 경험을 결코 충분히 포착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확장은 페미니즘 운동과도 긴밀하게 결합한다. 규범적 여성성과 남성성은 ‘여자는 원래 그래’, ‘남자는 원래 그래’와 같은 표현을 통해 생물학적 본질, 자연 질서가 된다. 이를 통해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삭제하고 여성성/남성성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태도를 처벌한다. 그런데 화장실 논쟁은 규범적 여성성과 남성성이 학교 교육과 같은 교육 제도, 양육 태도를 통해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재/생산되고 강화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트랜스젠더퀴어의 경험을 통해 제기된 의제가 정확하게 페미니즘의 의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탈코’라는 말로 여성성 규범을 문제 삼는 운동 혹은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긴 생머리와 같이 지배 규범적 여성성 실천을 강제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이 ‘운동’의 문제 의식만 살펴보면, 화장실을 문제 삼는 트랜스젠더퀴어 운동과 많은 측면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운동은 현재 트랜스 운동과 가장 적대적 위치에 있다. 탈코를 주장하는 집단은 mtf/트랜스여성이 여성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퇴행적 존재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랜스 혐오를 가장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집단(“TERF”)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트랜스젠더퀴어가 화장실을 문제 삼는 운동은 지배적 젠더 규범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범죄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성)폭력 행위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로 분명하게 구분된 화장실이 여성에게 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공중 화장실 경험이 대체로 불쾌했거나 불안했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동시에 오래된 문제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요한 문제로 재부상한 불법촬영 문제와 결부된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좁게는 성중립 화장실이 불안과 거부감을 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서 성중립 화장실이 상상되는 방식이 술집의 좁고 더럽고 어둡고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용 화장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화장실이 부지기수이기에 화장실은 언제나 불안한 공간이다. 성중립 화장실과 공용 화장실은 그 아이디어와 고민의 출발 지점부터 다름에도 공용 화장실 이용 경험을 토대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을 상상하기에 그곳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꺼려지는 곳이 된다. 그리고 실제 불편하고 가급적 사용하고 싶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 불안이 허무맹랑하거나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중요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싶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퀴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복잡한 감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둘러싼 논의를 어렵게 한다. 이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mtf/트랜스여성을 어/떤 존재로 상상하는가’라는 질문이다. mtf/트랜스여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면 비트랜스여성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라는 말은, mtf/트랜스여성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이 구성되는 방식과 재현 양상을 말해준다. 미디어에서 주로 재현되는 mtf/트랜스여성은 하리수 씨로 대표되는 ‘여성스러운’ 모습이지만 화장실 의제에서 mtf/트랜스여성은 거구의 근육질이거나 배 나온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모습이다. 혹은 <싸이코>, <양들의 침묵>처럼 범죄 영화에 나오는 정신병을 겪고 있는 연쇄살인범 이미지인지도 모른다. 이들 이미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없는 상상력이다. mtf/트랜스여성은 여성성을 강화해서 여성을 억압하는데 복무하는 존재거나, ‘사실은 남자’인데 자신을 여성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비트랜스여성을 기만하고 “강간”하려는 존재로 모두 여성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가부장제의 첨병이란 식이다. 이런 상상력과 논리는 모두 1970년대부터 일부 페미니스트가 트랜스 혐오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며 채택한 이미지와 정확하게 겹친다. 이 겹침은 mtf/트랜스여성 혹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삶과 사회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사유하기보다 추상적 이미지, ‘카더라’ 소문만으로 구성된 것이기도 하고, 트랜스젠더퀴어를 상상속 인물로 추방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생물학적 본질로 재생산하는 행위다.

안전을 근거로 하는 주장은 다른 한편으로 안전이라는 감각 자체를 다시 질문하도록 한다. 안전은 무엇인가? 안전은 어떻게 구축되는가? 퀴어 운동, 트랜스 운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무수히 다양하고 폭력적인 혐오가 난무하는 이성애규범적 사회에서 퀴어와 트랜스가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트랜스 운동에서 화장실을 문제 삼는 이유 중 하나도 트랜스젠더퀴어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게 안전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감각이자 지향점이다. 그렇기에 안전을 근거로 트랜스를 배제하겠다는 주장은 즉각적으로 공감 혹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주장이다’라는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문제 혹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폭력적 실천이나 질서를 문제 삼으며 안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배제하고 추방하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안전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2018년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왔을 때, 일부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한국에 난민이 유입되면

한국 사회가 위험해지고 성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며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멘 난민만 없으면 한국 사회는 마치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국가였다는 듯, 이 주장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이것은 여자 화장실을 mtf/트랜스여성이 사용하게 되면 위험해질 것이라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 구조, 감정 구조를 취하고 있다. 타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추방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획득하거나 유지시키고자 할 때, 이럴 때 안전은 지극히 규범적 감각이자 지배 규범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더 가깝다. 사회를 ‘단일민족’, ‘한민족’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망 혹은 백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공포와 범죄로 상상하는 태도, 모든 인간을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이원 젠더 체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망 혹은 비규범적으로 젠더를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 범죄자라는 상상력. 이 욕망이나 상상력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삶과 여성의 삶을 대립하는 적대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 배제와 추방을 통해 구축하는 안전은 이원 젠더 체제, 이성애규범성과 같이 집요하게 문제 삼아야 하는 지배 질서를 질문 구조에서, 사유 구조에서 삭제한다. 이럴 때 안전이라는 감각은 어떻게 논의되어야 할까?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안전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고 구축할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다시 사유할 것인가를 논하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안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아하는 화장실을 건물 가운데에 설치했다. 통상의 화장실은 계단 사이,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 혹은 건물 바깥 어두운 좁은 골목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장실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해도 다른 사람이 인지하기 어렵게 구조화되어 있다. 화장실의 공간적 배치는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한 공간임에도 건축물을 만들 때 인간의 공간적 삶에서 가장 나중에 고려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다른 말로 화장실을 통해 많은 위험한 사건, 불안한 일이 발생하고, 많은 불편을 일상에서 빈번하게 겪고 있음에도 성별 구분 화장실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식의 정책은 나와도 화장실의 위치와 구조 등 화장실 자체는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 아하는 화장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건물 가운데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그 위험이 발견될 가능성을 조금은 더 높여줄지 모른다. 동시에 건물의 가운데 배치한다는 말은 화장실 관리가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화장실이 건물/공간의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는가부터 화장실의 안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제공한다. 안전은 트랜스젠더퀴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보장되기보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위치, 화장실의 방음벽이나 안전 장치를 구축하는 방식 등을 다각도로 고민할 때 만들어갈 수 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둘러싼 논의의 또 다른 어려움은 아웃팅 염려에 따른다. 성중립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우려 중 하나는 ‘아웃팅’이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용으로 “원치 않게 성소수자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모두 성소수자’라는 곱지 않은 시각이 생길 수도 있다”⁶⁾는 식이다. 이 염려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미디어 인터뷰에서 이 발언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을 성소수자의 어느

6) 정반석. “성공회대 ‘성중립화장실’ 추진 찬반논란” <한국일보> 2017.09.2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210416991401>

한 범주로, 퀴어 동아리나 모임의 구성원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퀴어나 트랜스젠더퀴어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양육자 등 많은/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자 하는 기획이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대체로 트랜스젠더퀴어를 둘러싼 논쟁, 더 정확하게는 여자 화장실을 mtf/트랜스여성이 이용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쟁으로 대중에게 이해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쟁 구도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곧 퀴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곧 퀴어만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는 오해가 진실/사실처럼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오해에서 아웃팅 염려가 등장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웃팅 염려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의를 ‘오해’하며 나온 것이기에 그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며 오해를 풀어주면 될 것 같지만 이 염려는 간단한 감정이 아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성중립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하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말로 지금 한국에서 모든 화장실을 일제히 성중립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차적으로 몇 개의 화장실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성중립 화장실로 고치거나 설치한다면, 일단 이것 만으로 무척 기쁘고 환영할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화장실이 모두에게, 특히 트랜스젠더퀴어에게 수월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이용자를 퀴어로 단언하고 이를 통해 어떤 괴롭힘이 발생할 때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혐오는 그것이 오해라고 말하며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감정이 아니란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의 안전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퀴어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성중립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되었을 때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를 들어 한국의 일부(혹은 많은?) 건물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중 적잖은 곳이 ‘이용할 수 없음’ 혹은 ‘고장’이라는 풋말을 붙이고 있다. 아무런 고지 없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로 설치했지만 이곳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염려가 ‘그러니 성중립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성중립 화장실 혹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곧 ‘아웃팅’은 아니지만 혐오가 여전한 사회에서 새로 만들 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역시 중요한 고민거리다.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듯, 많은 사후 작업 역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실 성중립 화장실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의는 그 결이 조금 달라, 하나로 묶어 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성중립 화장실이 좀 더 트랜스젠더퀴어의 화장실 사용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자는 젠더 뿐만 아니라 장애, 육아, 질병 등 더 복잡하고 많은 논의를 동시에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논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화장실을 더 이상 단순히 ‘볼일 보는 곳’으로 간주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화장실을 ‘대충 볼일 보는 곳’, ‘급하게 볼일 보는 곳’으로만 여길 때 좁고, 어둡고, 지저분하고, 잠금 장치가 제대로 안 된 화장실은 여전히 넘쳐날 것이고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될 것이다. 하지만 화장실을 논의하면 할수록 화장실은 단순하게 고민할 수 없고,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게 된다. 화장실은 공간 배치, 공간 구성, 공간을 이용하는 몸의 규범성 등을 동시에 사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건물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발 제 5

**성별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조건과
해외의 사례들**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 들어가며

성별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또는 성중립화장실(이하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화장실의 구조, 배치 등의 구분이 없고, 나아가 장애유무나 동반자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화장실을 말한다.⁷⁾⁸⁾

이러한 화장실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트랜스젠더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⁹⁾ 그러나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개념이 언론이나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중반부터로 기억된다.¹⁰⁾ 2013년경부터 미국에의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관한 여러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화장실의 성별 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씩 증가한 것이 계기일 것이다. 그러던 중 2017년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화장실을 문제삼는 보도가 증가하면서 화장실은 소위 ‘전쟁터’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언론과 대중들이 공용화장실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개념을 혼용하면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정보들이 돌고 오해도 점차 증폭된 것이다. 그러한 오해와 물이해의 결과 화장실의 문제를 이유로 트랜스젠더, 젠터퀴어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실제로 설치하여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몇몇 인권단체들과 기업들에 설치되거나 추진되었을 뿐 공공기관이나 대중시설 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 사례가 아직은 없다. 2018년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 역시 여러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공공기관 등에 실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추진하려 하더라도 화장실의 성별분리를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 등 관련 법규와 충돌하는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본 발제문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설치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사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어째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설치에 있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실제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인식적 개선이 이루어야 할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필요성 : 화장실의 성별분리, 무엇이 문제인가

7) 「‘있는 그대로의 나’를 위한 성중립화장실」, <서울대저널>, 2017. 12. 2.

8) 다만 엄밀히 말해 ‘성중립화장실’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조금 다르다. 전자가 성별에 따른 구분만 없다면 후자는 성별 외에 장애, 개인의 조건, 동반자 등 유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한다.

9) 루인, 「뒤척이다」 성별이분법의 공간에서 뒤척이다, <인권오름>, 2007. 2. 6.

10) 구글 검색어 통계 시스템 Google Trend를 통해 ‘성 중립 화장실’이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2015년부터 검색어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https://trends.google.com/trends/explore?date=all&geo=KR&q=%EC%84%B1%20EC%A4%91%EB%A6%BD%20ED%99%94%EC%9E%A5%EC%8B%A4>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남/여 성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화장실을 설계함에 있어 당연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공중화장실의 성별분리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한다. 가령 1900년대 파리에 만들어진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남녀공용이었고¹¹⁾, Kogan(2007)에 따르면 미국에서 화장실의 성별분리가 이루어진 것은 19세기부터이고 이것이 법으로 제정된 것은 1887년 메사추세츠가 최초이다.¹²⁾ 이처럼 화장실의 성별분리는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남녀가 유별하다는 성별이분법이 공고한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분리는 빠르게 당연해졌고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성별분리가 확고하게 갖추어진 대다수의 공중화장실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렇게 성별에 따라 분리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면 이것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별이분법이라는 공고한 개념이 흔들리고 다양한 소수자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분리된 화장실은 누군가에게는 불편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넘어 기본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화장실의 성별분리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화장실 이용

법적인 성별과 외관, 성별정체성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분법적이지 않은 성별정체성을 지닌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에 있어 화장실 이용은 그 자체로 모험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44.2%가 공중화장실 이용 시 ‘불쾌한 시선’, ‘모욕적 발언’ 등 차별경험을 하였고, 41.1%가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그리고 이러한 화장실 이용의 불편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트랜스젠더 등이 하는 것이 화장실을 참는 것이다. 이것이 탈수증, 배뇨장애 등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나아가 외관과 법적성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는 트랜스젠더 등이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2018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¹⁴⁾ 위반 혐의로 체포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⁵⁾

2) 이성의 자녀 또는 파트너를 동반한 경우

어린 딸을 동반한 아버지¹⁶⁾와 같이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도 성별 분리된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공중화장실 중 성별구분 없는 다목적 화장실이 따로 설치된

11) 야곱 블루메, 「화장실의 역사」, 이룸, 2005: 230-231쪽.

12) Terry S. Kogan, "Sex-Separation in Public Restrooms: Law, Architecture, and Gender", 「Michigan Journal of Gender & Law」 2007: 14.

13) 장서연 외(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14) 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2018형제*****, 다만 위 조항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은 드물다. 해당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16) 「"아빠, 들어와" 난 여자화장실에 간다」, <오마이뉴스>, 2016. 6. 16.

곳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남/녀로 구분된 공간 안에서 아동용 변기가 같이 배치된 넓은 칸이 하나 있는 경우가 많기에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이성의 파트너나 배우자가 보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별분리 된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이성의 활동보조인을 동반한 장애인의 경우

성별 분리된 화장실 앞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의 또 하나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성별이 다른 경우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성비가 불균등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활동보조인과 동반하여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 경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어느 쪽의 성별에 따른 화장실을 사용해도 타인의 시선 등 불편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에, 대안으로서 차라리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한다.¹⁷⁾

4) 여성화장실의 긴 대기시간

한편 화장실의 성별분리는 성소수자, 장애인, 가족 동반을 한 특정 집단을 넘어 모든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에서도 문제가 된다. 바로 남성화장실에 비해 긴 여성화장실의 대기시간으로, 사람이 몰리는 때에 여성화장실 앞에만 긴 줄이 서는 광경은 흔하게 목격된다. 이러한 대기시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을 동일면적으로 구성할 경우 여성화장실의 변기수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화장실의 면적을 남성화장실보다 더 크게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¹⁸⁾ 건축 여건상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에서 성별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실제로 수학적 연구에 따르면 화장실의 성별구분을 없앤 경우 성별분리시보다 전체 이용자의 평균 대기시간이 약 3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¹⁹⁾

3.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화장실의 성별분리는 특정 집단의 배제 및 이용에 있어 불편을 가져오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나 근본적인 문제는 화장실의 성별분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인들의 성별을 구분하는 관념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트랜스젠더 등이 화장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이는 비단 트랜스젠더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젠더 중에서도 성별고정관념에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하고 있는 경우 화장실 이용 시 타인의 시선을 받거나 제지를 당한 경험들이 여럿 존재한다. 이러한 면에서 화장실의 성별분리는 성별이분법적 사회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17)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자료집, 2014

18) 현행 「공중화장실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No more queuing at the ladies’ room”, 『PEOPLE QUEUE MAGAZINE』, 2017. 7. 13.

실제 해외에서 성별구분없는 화장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성별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다. 서두에 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는 남녀공용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남녀공용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전제에서 단지 구조물에 있어 분리만을 하지 않은 화장실이라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성별을 전제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수요에 따라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화장실이다. 그런 면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계, 설치한다면 통상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²⁰⁾

1) 각 방실의 배치

우선 개별 칸만 존재하는 1인용 화장실이라면 단지 내부 구조를 동일하게 하고 표지판을 바꾸는 정도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여러개의 방실이 존재하는 다인용 화장실의 경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기본적 형태는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성별구분 없는 표지가 붙은 개별 방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 화장실이 나란히 배치된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이 때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각 방실 간에 격벽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틈새 없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59]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화장실 모습

2) 각 방실의 내부 구조

성별과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방실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하고 관련된 보조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성별 등에 따른 편의시설(위생용품 수거함 등)도 동일하게 구비되어야 하고,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를 고려할 경우 아동용 변기 등도 설치될 필요가 있다.

20) 아래 부분은 여러 나라들에서 실제 설치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사례와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60] 일본 후추시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손잡이, 소아용 의자, 인공항문 세척기 설치) [그림 61] 스웨덴의 성별 구분없는 화장실

3) 화장실의 배치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명칭에서 나오듯 해당 화장실은 트랜스젠더, 장애인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어야 한다. 따라 기존의 남/여 성별 분리된 화장실을 그대로 둔 채 중간에 성별구분없는 화장실을 배치하는 (현재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과 같이) 방식은 이용자들을 분리시켜 낙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태국의 경우 대학교에서 카토이(kathoey, 광의의 트랜스젠더를 가리키는 태국 용어) 학생 전용의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낙인과 차별을 불러온다는 인권활동가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다.²¹⁾ 따라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해당 건물 내지 해당 층에 존재하는 화장실 전체를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21) Outrights Action International, "THAILAND: THE TALE OF THE PINK TOILET - TRANSGENDER RIGHTS IN THAILAND"

<https://www.outrightinternational.org/content/thailand-tale-pink-toilet-transgender-rights-thailand>



[그림 5] 미국의 남녀공용화장실, 이러한 구조는 이용자를 트랜스젠더 등에 한정시켜 또 다른 낙인을 가져올 수 있다.

4) 화장실 표지

화장실 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표지들이 존재한다. 가장 흔한 것은 성별을 나타내는 픽토그램(바지 & 치마)을 병기하거나 중성적인 형태의 픽토그램(반은 바지/반은 치마)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은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라는 성별이분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그 보다는 단지 글자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표시하고 변기 모양의 픽토그램을 배치하는 형식의 표지판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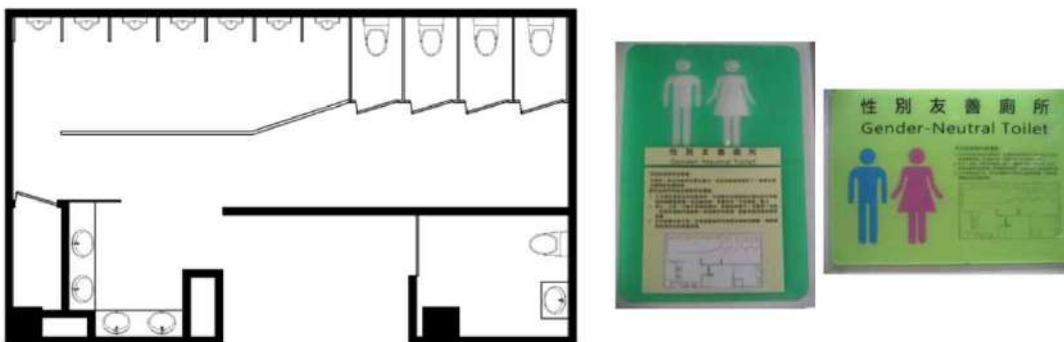
[그림 6] 다양한 형태의 성별구분없는 화장실 표시



[그림 7] 일본 나고야 대학에 설치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 표지

5)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 : 남성용 소변기는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설치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형태는 변기만을 갖춘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성용 소변기를 같이 비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소변기들은 칸막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변기 비치에 고려되는 이유는 위생상 이유, 물 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용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²²⁾ 그러나 소변기는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소변기를 굳이 비치할 필요는 없다 생각된다. 다만 여러 여건 상 새롭게 화장실을 만들 수 없고 기존의 성별분리된 화장실을 개축해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만들고자 한다면 소변기/변기가 혼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조가 고려될 수 있다.



[그림 8] 대만 국립과학교육관 화장실, 소변기 앞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22) 화장실 형태에 따른 대기시간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성별구분없이 변기만을 비치하는 것보다 변기, 소변기를 적절히 비치할 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No more queueing at the ladies’ room”, 『PEOPLE QUEUE MAGAZINE』, 2017. 7. 13.

4. 외국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관련 법제도와 관련 논의들

1) 미국

미국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887년 메사츄세츠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화장실에서 성별분리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3년 콜로라도 시민권리 위원회가 6세의 트랜스젠더 여성 아동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허가한 사실이 보도²³⁾되면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권리에 대한 논의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4년 휴스턴주의 차별금지조례가 반대세력에 의해 화장실법으로 왜곡되어 끝내 주민투표에 의해 폐지되는 일이 발생²⁴⁾하고, 2016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규정한 House Bill 2²⁵⁾를 제정하면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문제는 가히 ‘전쟁터’가 되었다.

한편으로 위 사례들은 주로 성별 분리된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체성에 따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논의가 진전되면서 화장실의 성별구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산되었고, 오바마 행정부가 백악관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²⁶⁾하는 등 화장실에서의 성별구분을 없애는 변화들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주에 따라 관련된 법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래의 모든 주 내의 단독 화장실에서 성별구분을 없애도록 하는 2017년 캘리포니아주의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개정안과, 또한 워싱턴 D.C의 조례이다.

캘리포니아 법안 1732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4편 제15장 제2절에 다음과 같은 제5조를 추가한다.

- (a) 모든 사업장, 공공시설, 또는 주 및 지방정부의 단독 화장실은 캘리포니아 법규집 Title 24에 따라 모든 성별을 위한 화장실로 인정되어야 하고, 한 번에 1인 내지는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야 한다.
- (b) 검사원, 건축 또는 지방정무 공무원이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원 내지 공무원은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 (c) 본 조에 있어, ‘단독 화장실’이라 함은 하나의 변기와 하나의 소변기를 갖추고 이용자가 안 쪽에서 문들 잠글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d) 본 조는 2017. 3. 1.부터 시행된다.

23) 「Transgender child, 6, wins civil rights case to use the girls restroom at school in Colorado」, <Daily Mail Online>, 2013. 6. 24.

24) 「미국 휴스턴 시민들, '성차별금지조례법' 폐기시키다」. <희망한국>, 2015. 11. 5.

25) 이 법은 국내외의 여러 비판으로 결국 폐지되었다.

26) 「美 백악관 '성 중립 화장실' 설치」, <중앙일보>, 2015. 4. 9.

워싱턴 D.C. 조례

제4편 인권과 관련 조항

4-802장 화장실과 다른 성별 특정한(gender-specific) 시설

802. 1. 이 법을 적용받는 모든 자들은, 수정된 바와 같이, 개인들이 성별 특정한 화장실 및 다른 성별 특정한 시설(탈의실, 노숙인 쉼터, 그룹홈) 등의 이용에 있어 자신의 성별 정체성, 성별표현에 일치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802. 이 법을 적용받는 모든 자들은, 단독 화장실에 성중립적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남자', '여자'로 표시된 표지를 '화장실'로 고쳐야 한다)



[그림 9] 캘리포니아 대학에 설치된 화장실 모습

또한 회사 내에서 트랜스젠더 직원이 화장실 이용으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미국 직업안전 위생관리국과 노동부는 합동으로 '트랜스젠더 직원의 화장실 이용을 위한 가이드'²⁷⁾를 발간하였다. 해당 가이드는 화장실 이용에 있어 트랜스젠더 직원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회사가 모든 직원들이 선택 가능한 ① 성별 구분없는 단독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② 성별 구분없는 화장실이 포함된 다인용 화장실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시설이 모든 직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27)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015). A Guide to Restroom Access for Transgender Workers. <https://www.osha.gov/Publications/OSHA3795.pdf> 참조.

2)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개최되는 최대의 연례행사인 캐나다 내셔널 박람회(Canadian National Exhibition)에서 2016년 기존의 화장실 표지를 아래와 같이 'We don't care'가 적힌 성중립 화장실 표지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²⁸⁾



[그림 10] 캐나다 내셔널 박람회장 화장실에 부착된 표지판

한편 캐나다 밴쿠버시는 다음과 같은 조례를 통해 성중립화장실(Unisex Toilet)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조례 10908

건축물 건설 및 관련 문제를 규제하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건축법을 채택하는 조례

3. 7. 2. 2. (17)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 사업장, 가게, 산업체 등은 2개의 성중립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다.

- a) 총 이용면적이 200m²이하일 것
- b) 총 이용인원이 60명 이하일 것
- c) 각 화장실 방실은 변기와 세면대를 갖추어야 하고
- d) 최소한 하나의 방실은 3. 7. 2. 10. (9)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7. 2. 11. 성중립화장실의 요구사항

28) 「'We don't care' - the new sign for gender-neutral toilets」, <BBC>, 2016. 8. 25.

- 1) 성중립화장실의 각 개별방실은
 - a) 전체 높이의 격벽과 문을 갖추고, 바닥으로부터 격벽, 문 사이의 틈이 150mm 이상 300mm 이하여야 하고
 - b) 사용 중인 경우 이를 표시하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2) 성중립화장실 시설의 전체 입구는
 - a) 문이 없거나
 - b) 환기구나 채광창이 달린 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영국

영국의 경우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관련된 명확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의 전체 사업장 환경을 규정하는 「1992 사업장(보건, 안전 및 복지) 규정(The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은 원칙 상 화장실을 남녀 분리로 규정하되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하고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성별구분없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한편 2018년 웨일즈 정부 사무소는 런던과 카디프에 위치한 사무실에 총 8개의 성중립화장실이 있다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²⁹⁾

4) 일본

일본의 경우 현재 명시적으로 성별구분없는 화장실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2006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를 촉진하는 법률(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통칭 배리어프리법이 제정되어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다목적 화장실이 설치되었고 몇몇 성소수자단체에서는 해당 다목적 화장실에 성소수자도 이용가능하도록 표지를 붙이는 운동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유니버설디자인2020행동계획(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 2020 行動計画)」을 수립하고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을 정비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0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성별구분없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건설 중에 있다.³⁰⁾

또한 기업들에서 자체적으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움직임도 활발한데, 가령 세계 최대의 변기회사인 TOTO에서는 2018년 ‘생각해보자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이라는 가이드 북³¹⁾을 내었으며, 신칸센, 하네다공항 라운지에도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된 사례들이 있다.

29)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16473/18FOI_25_-_Gender_Neutral_Toilets.pdf

30) “男女共用トイレ、介助用ベッド、人工肛門・・・東京五輪・パラリンピック会場で新ピクトグラム使用へ”, <毎日新聞>, 2019. 2. 24.

31)



[그림 11] TOTO에서 발행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 가이드북

5) 대만

대만은 일본과 유사하게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화장실 관련 법령 외에 성중립화장실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관련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내정부 건축연구소의 위탁으로 2016년 ‘성중립화장실 설계정책 연구(性別友善廁所設計手冊之研究)’를 통해 전국의 성중립화장실 설치 사례와 관련 법규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졌고 이를 바탕으로 성중립화장실을 위한 설계원칙과 고려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³²⁾ 또한 2017년에는 한 중학교에 시범적으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되기도 하였다.³³⁾

6. 한국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상과 같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건,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으며, 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점들이 고려되어야겠지만 이 글에서는 가장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현재 화장실 관련 법규와의 충돌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보고, 이것이 모두를 위한 화장

<https://www.catalabo.org/iportal/CatalogViewInterfaceStartupAction.do?method=startUp&mode=PAGE&volumeID=CATALABO&catalogId=49488380000&pageGroupId=1&designID=link&catalogCategoryId=&designConfirmFlg=&keyword=>

32) 中華民國內政部建築研究所, 「性別友善廁所設計手冊之研究」, 2016.

33) “台灣第一所中學性別友善廁所在爭議聲中啟用”, <環球人物網>, 2016. 11. 22.

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위주로 살펴본다.

1) 현행 화장실 관련 법규 중 성별분리에 관한 내용

현재 공중화장실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법률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중화장실 일반에 대한 기준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기준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다.

이 중 공중화장실법을 살펴보면 동 법 제7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⁴⁾ 여기서 공중화장실은 일반 공중이 이용하도록 설치된 화장실을 말하고, 개방화장실은 원래는 사업장 내의 화장실이나 필요에 따라 공중에게 개방된 화장실³⁵⁾을 말한다. 이러한 제7조의 구분은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시·군수·구청장은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13조), 이러한 조치도 위반한 경우 동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 법은 모든 민간화장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화장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장실(이전에는 연면적 3,000m²)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2017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공용화장실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정부는 2017. 11. 위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0m²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18. 11.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위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 일반에 대해 성별 구분이 의무화되는 반면, 장애인 화장실은 별도의 법인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화장실 기준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³⁶⁾되어 위 공중화장실법에 비해 다소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 화장실은 아직까지도 성별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2) 화장실 관련 법규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금지하는가

이와 같이 현재의 화장실 관련 법규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에서의 성별 분리를 원칙으로 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법규상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불가능한 것일까?

34) 해당 조항은 공중화장실법이 제정된 2004년부터 존재했다.

35) 어떤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인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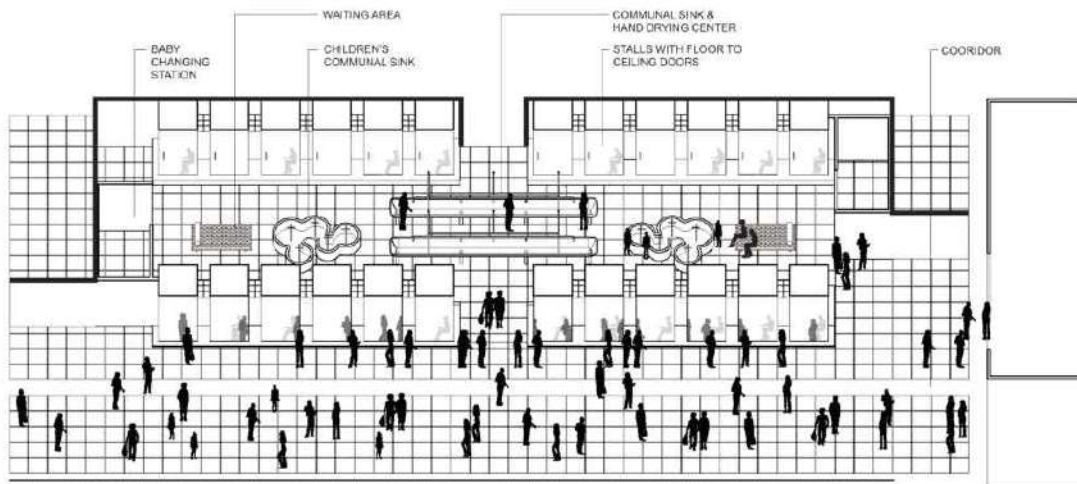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https://www.data.go.kr/dataset/15012892/standard.do>)를 참조하면 된다.

36)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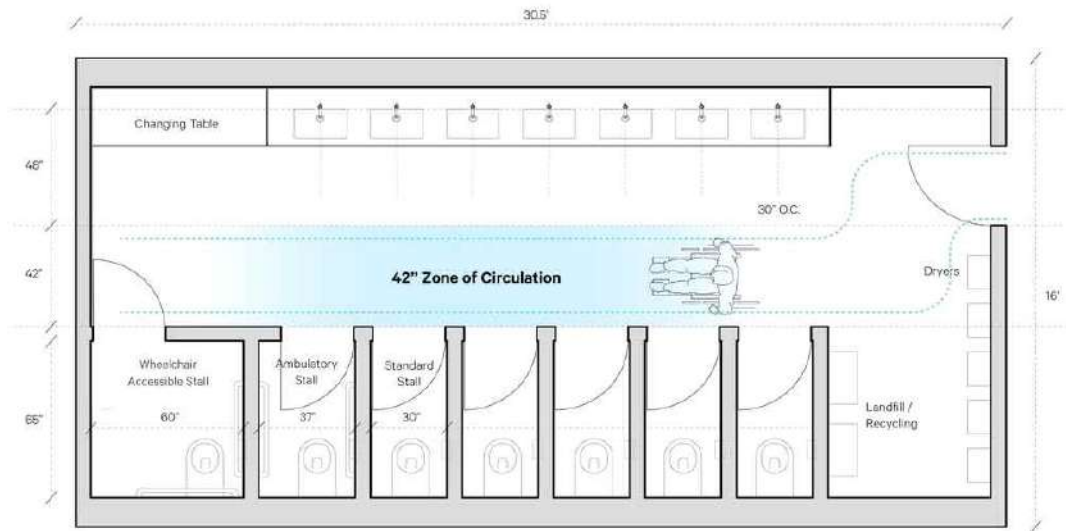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처럼 관련 법규가 정비된다면 좋겠지만 현재의 법제도 속에서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위 법들은 공공기관, 생활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해당 규모가 아닌 민간 시설에서는 자유롭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상 성별분리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바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한 이로 인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드물 것이다. 가령 대학 내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합의가 되었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에 비추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관련 법규가 개선될 필요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다.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고 인간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기에 그 동안 성별에 따라, 장애 유무에 따라, 동반자 유무에 따라 화장실 이용은 분리되어 왔고 누군가는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해결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화장실이 단지 하나의 시설을 넘어 정치의 공간이며 누군가를 배제해 온 공간이었다는 인식의 전환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그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의 화장실 이용의 권리가 더 많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 :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계도



[그림 7] Kara Biczynowski and Joel Sanders Architect가 설계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 모습



[그림 8]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 모습
www.stalled.online/approaches

모두를 위한 화장실 체크리스트

내용	no.	확인사항	적합	부적합
위치	1	전동 스쿠터 및 유아차 이용인들을 포함한 모두가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예, 건물의 1층 혹은 로비층과 같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		
	2	건물 1층 혹은 로비층 주출입구에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가 있는가?		
안내도	3	건물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 안내도, 호출벨, 점자블럭(안내 데스크 및 주통로까지)이 설치되어 있는가?		
	4	화장실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임을 알 수 있는 점자안내판과 점자블럭이 있는가?		
	5	화장실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이 화장실 부속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점자해설 안내도가 있는가?		
	6	화장실 출입구에 화장실 배치도가 있고 어떤 칸이 차 있고 어떤 칸이 비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성별이분법 탈피	7	해당 건물 혹은 해당 층에 존재하는 모든 화장실이 성별 구분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8	해당 공간 전체가 성별 구분 없이 구성되어 있는가? (외부 구조 및 내부 부속물, 색상 등)		
	9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가?		
	10	기존의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된 화장실에 더해 추가로 가족화장실, 다목적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등의 이름으로 설치된 경우라면, 성별로 구분된 화장실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는가?		
출입문	11	출입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는가?		
	12	출입문이 버튼을 여닫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가?		
	13	출입문 버튼은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한가?		
	14	출입문이 유리일 경우 내부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불투명한가?		
	15	출입문과 출입버튼이 달린 벽이 직각일 경우 출입문과 출입버튼 사이에 0.6~0.8m의 거리가 있는가?		
	16	발로 누를 수 있는 발 높이 출입버튼이 설치되어 있는가?		
부속물 높이	17	화장실 출입문 버튼의 높이가 0.7m~0.9m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가? (0.8m가 가장 적합)		
	18	전동 스위치의 높이가 0.7m~0.9m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가? (0.8m가 가장 적합)		
	19	전동 스쿠터, 휠체어 충전 콘센트의 높이가 0.7m~0.9m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가? (0.8m가 가장 적합)		
	20	휴지걸이(휴지배출구)의 높이가 0.5m~0.7m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가?		
	21	핸드 드라이어의 높이가 0.7m~0.8m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가?		
	22	물내림 버튼이 변기 중앙부 벽면 높이 0.4m~0.6m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가?		
	23	발로 누를 수 있는 발 높이 물내림 버튼이 설치되어 있는가?		

	24	세면대의 높이가 조절 가능한가? 혹은 세면대의 하부는 휠체어 발판과 이용인의 무릎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단높이는 0.65m 이상, 상단높이는 0.85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세면기의 깊이가 휠체어 이용인, 어린이, 키가 작은 사람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가?		
보조손잡이	25	변기 옆 벽면에 L자형 손잡이가 지면으로부터 0.6~0.7m 사이, 변기의 중심에서 0.4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상하 가변형 U자형 손잡이는 높이 0.6m 이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휠체어의 움직임에 방해가 없도록 회전식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26	세면기에도 보조손잡이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응급비상벨	27	변기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비상벨이 변기 전면부, 높이 0.4m에 응급벨이 있는가?		
	28	넘어졌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응급비상벨이 변기 전면부 0.7m, 높이 0.2m에 있는가?		
영유아	29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30	기저귀 교환대의 높이가 조절되는가? 혹은 1.0m 이내에 설치하였는가?		
	31	영유아 거치대(안전의자)가 높이 0.7m~0.9m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가? (0.8m가 가장 적합)		
	32	유아용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혹은 유아용 변기커버가 마련되어 있는가?		
활동 공간	33	2.5m x 3.0m 이상의 총 면적을 가지고 있는가?		
	34	출입문 통과 유효폭이 1.0m이상인가?		
바닥	35	바닥면이 높이 차이가 없는가?		
	36	바닥 재질이 목발을 사용하거나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가?		
거울	37	거울의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가? 혹은 휠체어 이용인이나 아동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상단으로부터 약 15도 정도 기울어 진 각도로 설치되어 있는가? 혹은 전신거울로 되어 있는가?		
비데	38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가?		
	39	양쪽 어느 손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비데인가?		
변기 옆 세면기	40	월경컵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면대가 변기에서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리, 높이 0.6m~0.8m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가?		
접이식 침대	41	와상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접이식 간이침대가 마련되어 있는가?		
자판기	42	다양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모든 버튼이 높이 0.6-0.8m 사이에 있는가?		
	43	다양한 콘돔을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모든 버튼이 높이 0.6-0.8m 사이에 있는가?		

1. 정리 : 한국다양성연구소 / 자문 : 심지선, 박한희, 루인, 타리
2. 이 체크리스트는 수정·보완을 통해 발전 가능합니다.

3. 화장실의 설치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모두를 위한 화장실> 또는 <성별 구분없는 화장실>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다양성 연구소
Diversity Korea

diversity.or.kr



토론회 속기록

모두를 위한 화장실, 어떻게 만들까

성별이분법적이고 비장애 성인 중심적인
화장실의 재구성

2019년 5월 18일(토) 오후 1~4시

서울시NPO지원센터

토론회 속기록
모두를 위한 화장실, 어떻게 만들까

주최

한국다양성연구소
Diversity Korea

후원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속기록 목차

발제1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는 가능하다 2

-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발제2

공간, 이동, 위생에 대한 소수자들의 재구성이 가능할까? . . . 20

- 나영정(타리) 퀴어 활동가, 장애여성공감 이사/정책연구원

발제3

베어리어 프리(Barrier Free) 화장실의 구성요소 27

- 심지선 전북장애인인권연대 활동가

발제4

화장실이라는 어려운 공간 48

- 루인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연구원

발제5

성별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조건과 해외의 사례들 . 55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질의응답

Q&A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플로어 토론 81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지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 좋은 토요일에 여러분들 정말 와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간식 좀 드셨나요? 비건김밥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드시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이라고 하고 연구소에서 준비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어떻게 만들까?>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눌 발제자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귀어활동가이시고 장애여성공감 이사이자 정책연구원이십니다. 옆에는 한희 선생님 공익인권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이십니다. 루인 선생님은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옆에 심지선 선생님은 전북장애인인권연대 활동가이십니다.

발제 순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한 분씩 발제를 해주신 후에 연구소에서 만들고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자문 해주신 화장실 체크리스트를 모두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책자의 맨 뒤에 있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쉬는 시간 동안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생각과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 후에 발제와 체크리스트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토론자이십니다. 사전 질문해 주신 거 답변 드리고 직접 토론자로 오신 모든 분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또 체크리스트에 추가/보완하고 싶으신 내용들 말씀해 주시는 함께 만드는 토론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의 속기록이 발제문과 함께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배포될 것입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다시 안내해드리겠지만 명확한 속기를 위해서 발표하시거나 토론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코멘트 하실 때는 이름이나 닉네임, 별칭 꼭 말씀해 주시면 속기할 때 편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 제 1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는 가능하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는 가능하다’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 발제로 전체 토론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점차 그런 사회를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그런 세상을 앞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이 토론을 준비했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라고 할 때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거창하게 들려서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하나 하나 바꿔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간들부터 생각해 보기 위해 매일 마주하는 나의 일상에 대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용하는 이 시설, 서비스, 제도는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할까?’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더라도 이 공간에서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이 공간을 전혀 이용할 수 없거나 소속될 수 없는 사람들은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삶은 수많은 공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공간들 속에 포함, 수용, 용인, 인정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소외, 차별, 억압, 폭력을 경험하는 존재인가 문제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삶을 질을 구성하고 그 사람이 사회 속에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살면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공간들 중에서도 하루에도 여러 번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 모델은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일까요? 성별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비장애 중심적이고 성인 중심적인 화장실에 대해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실에 대한 욕구와 필요한 장애인, 트랜스젠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 의해서 강력하고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트랜스젠더 그리고 여성이 원하고 필요한 세상은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맞닿아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성중립화장실, 무장애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실제적인 방법과 제도들까지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봐주시면 화장실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불편하거나 바뀌어야 할 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중: 여자만 기저귀를 갈 수 있어요.

지학: 그렇죠! 기저귀 교환은 여자만 하나? 남자도 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청중: 장애인.

지학: 그렇죠. 이제 '장애우'라고 하지 않죠. '장애인'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사람 중심적인 용어로 바뀌었죠.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했으나 너무 시혜적인 표현이라는 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청중: 색깔이요.

지학: 색깔! 그렇죠. 성별이분법에 따라 여성은 치마 입혀 놓고 빨간색으로 해놓고 남자는 바지 입혀 놓고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또요?

청중: 장애인 마크.

지학: 그렇죠. 장애 마크가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있을까요?

청중: 위치가 늘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지학: 위치가 늘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어떤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청중: 높이가 높아요.

지학: 네. 그렇습니다. 표지판이 굉장히 높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죠. 거의 천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표지판뿐만 아니라 점자 표시도 굉장히 높게 해놔서 점자를 만질 수

없는 곳에 해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있을까요?

청중: 젠더 중립적인 표시가 없습니다.

지학: 그렇죠. 젠더 중립적인 표시가 없죠. 둘 중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사람들, 성별이분법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느 화장실로 갈지 모르겠는 표지판이에요. 또 있을까요?

장애인 화장실은 성별 구분이 없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장애인들은 무성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고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어요. 이제는 장애인 화장실에 성별 구분이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을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 표지판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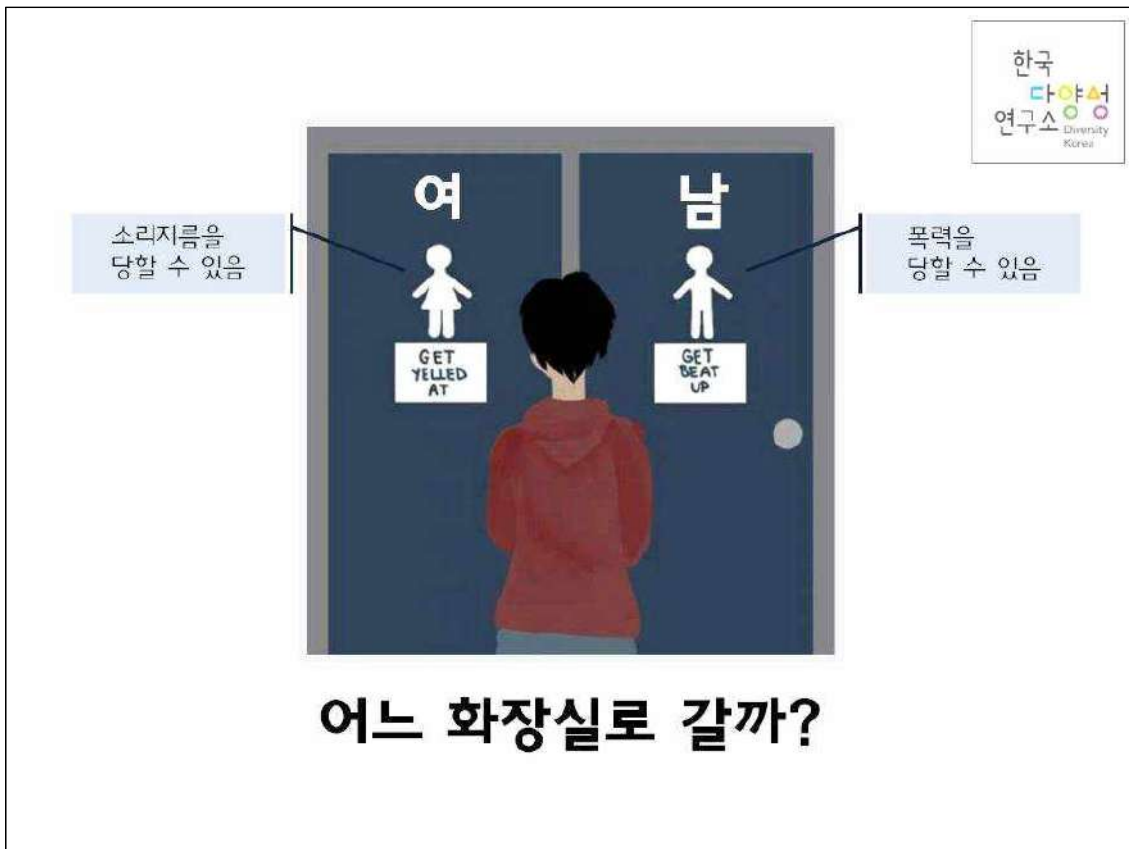
이렇게 ‘레스트룸’, 그냥 ‘화장실’이라고만 되어 있는 화장실 표지판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청중: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학: 네, 그렇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성별이분법이 너무나 익숙한 사회에서는 ‘남자 화장실은 어디예요?’, ‘여자 화장실은 어디예요?’라도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성별이분법적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에 보여드린 화장실 표지판을 수업할 때 종종 쓰곤 하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한 학생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표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나 화장실을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감각, 인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 있다’는 것 표시해 줘야 하는 것이다. 표시가 없어도 어느 화장실이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라고만 쓰여 있는 표지판을 보면 성별이분법이 불편한 사람도 장애인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화장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상상해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에서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친구는 4살 때부터 자기가 다른 성별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알게 됐는데 자꾸만 자기를 다른 줄에 세우려고 해서 이상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소풍이나 산책을 갈 때 늘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을 세워서 남녀 짝꿍을 만들어서 손잡게 하고 걸었고 짝꿍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화장실을 가게 한다든지 물을 먹게 한다든지 그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한 줄로 세웠는데 자기는 늘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줄을 세우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자 괴롭힘과 놀림이 시작되고 ‘남자 맞냐?’, ‘고추 있냐?’ 그러면서 놀리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되어서는 화장실도 따라오고 바지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 번은 화장실 문을 닫고 가둔 채 성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화장실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집 밖에 나오면 집에 들어갈 때는 대소변을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방광염을 달고 살았고 지금까지도 방광염과 각종 합병증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해서 학교 밖에 문방구나 떡볶이 집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너무 불편해서 집에 갈 때까지 참고 하교를 한 후에나 화장실에 가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지금도 자기가 알고 있는 안전한 화장실이 아닌 경우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간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도 물도 커피도 잘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은 서울시NPO지원센터 화장실입니다. 여성과 남성 화장실 사이의 벽에 ‘성평등 프로젝트 꼬막’이라는 팀이 예전에 달았던 포스터입니다. ‘두 곳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곳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질문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시스젠더로서 성별정체성에서 특권 그룹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의 다양성 교육에서는 사회적 특권과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 특권그룹의 특징은 억압그룹에 비해서 사회적 부, 명예,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에 다가가기 한 발 더 쉽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고 자기 정체성이 표준이고 정상이라고 여겨지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억압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부, 명예,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원에 다가가기 어렵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많이 빼앗기고 자신의 정체성이 비정상으로 여겨지거나 표준 규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도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생각해볼 필요가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특권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도구함으로 쓰인다든지 1층도 아닌 2층, 심지어 꼭대기 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든지 휠체어를 타고 진입을 할 수 없는 접근성이 없는 곳에 만들어 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의 모습입니다. 도서관 안에서 장애인 자료를 따로 모아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문을 당겨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인들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예 들어갈 수 없는 휠체어 이용인들도 있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좀 잡아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라고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 화장실은 성인 중심이어서 아이와 동반해서 화장실 이용해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가 썩 빠집니다. 그래서 유아용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진과 같은 변기 커버라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가족화장실’이라는 이름의 화장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화점, 아웃렛,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가족화장실이 생기고 있고 이 화장실에 가보면 유아용 변기나 변기뚜껑이 있습니다. 가족화장실의 표지판을 보면 이성애 중심적인 정상 가족을 그리고 있다거나 기저귀 교환을 여성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거나 장애인 마크도 수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등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어린이와 동반할 수 있는 화장실 많이 설치되고 있다는 점은 반갑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워낙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때문에 이런 시설들도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아이를 동반하는 부모들이 소비의 주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고객 서비스로 가족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화장실이나 성중립 화장실도 가족화장실만큼 소비의 주체들을 위한 마땅한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청사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 1층
어린이화장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서울시 청사 서소문 별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어린이 화장실을 만들 어놨어요.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생겼을 때 보고 ‘성중립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생겼으 면 딱 좋은 위치인데 어린이화장실이 생겼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맨 처음에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 계획이 무 산되면서 어린이화장실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반대 여론 등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성중 립화장실을 만들지 못하고 어린이 화장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자주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의 내부구성물이 변기 하나와 세면기 하나로 완전히 똑같은 화장실 두 칸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나누어놓은 화장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같은 화장실인데도 성별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화장실이 딱 두 칸만 있는 작은 공간일 때 제시할 수 있는 화장실 모델에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화장실”로 두 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 중에 이런 화장실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들마다 1층은 모두 모두를 위한 화장실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남녀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은 모두가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칸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따가 많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성중립화장실은 성소자만 가는 거 아니냐’, ‘아웃팅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물에 1층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급하면 1층에도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급한데 2층, 3층 가고 싶은 분 없으시죠? 저는 전혀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1층 화장실 썼습니다. 급하지 않더라도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제가 같이 졸업한 동기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준비하다가 성중립화장실 사진이 필요해서 그 형에게 ‘1층에 있었던 성중립화장실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 그랬더니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석사 마치는 동안 항상 그 화장실을 다녔으면서도 ‘거기가 성중립화장실이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성중립 화장실인지 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인권재단 사람

화장실을 두 칸만
만들 수 있을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모델들

화장실이 두 칸만이 있을 때 또 다른 화장실 모델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인권재단 사람인데요. 여기는 성별 구분 없는 1인 화장실 한 칸 만들어놨고 또 다른 한 칸은 비장애인과 함께 쓰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곳의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조금 더 좁고 비장애인과 함께 쓰는 장애인 화장실이 좀 더 넓습니다. 이분법적 성별 구분이 불편한 사람들도 휠체어 이용인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 비성소수자들도 두 칸 중 어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둘 중 한 칸에 사람이 있으면 다른 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아웃팅이나 화장실 활용도에 대한 걱정도 없게 됩니다. 화장실을 두 칸 밖에 만들 수 없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김포공항



다섯 개의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김포공항인데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리고 장애인 여성 화장실 장애인 남성 화장실 그리고 가족화장실의 이름으로 다섯 개의 공간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화장실 형태들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접근 할 수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진은 부산해운대 더베이 101이라는 건물의 화장실입니다. 각각 혼자 쓰는 한 칸짜리 방 화장실이 7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곱 칸 중 어디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서 7개 중에 가운데 있는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표시해 놔고 왼쪽 3개는 여성, 오른쪽 3개는 남성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구성품은 비데를 갖춘 변기와 세면기 등으로 일곱 칸 전부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실은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7개를 설치해 놔는데 사람들 자꾸 여자 화장실 어디냐 남자 화장실 어디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표시만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카드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 새로 만든 화장실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1인 1실로 된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을 복도를 따라 쪽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묵적으로 반을 나눠서 여성 화장실 반, 남성 화장실 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용화장실? 모두의 화장실? 그냥 화장실?



그 다음 이 화장실 한번 봐주세요. 미국 있는 화장실 예시인데 방금 보여드린 더베이 101과 같은 모습이지만 세면기가 각각의 화장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실로 나뉘어져 있는 1인 화장실들로 되어 있고 세면기 쓰는 공간도 밖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용 화장실”과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다른 점은 화장실 문이 위에도 막혀 있고 바닥도 막혀 있어서 다른 칸을 들여다보는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런 모델들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화장실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남성들을 화장실에서 보는 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여성들이 안전함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화장실 모델은 제시할 수가 없죠. 남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난민, 이주민, 트랜스 여성 등)도 함께 연대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공간과 안전을 침범할 위험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인식들은 물론 가짜 뉴스에 의한 부분도 많지만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그 두려움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이성적인 공포도 줄어 들 수 있고 성중립화장실에 대한 논의와 설치도 더 활발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더 빠르고 쉽게 설득, 제시, 설치 될 수도 있는 모델입니다.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로 나뉘어서 들어가기 전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혹은 가족화장실이나 다목적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한 칸짜리 화장실 마련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다니시면서 ‘가족화장실’이라는 화장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종종 여자 화장실이나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가족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들은 가족화장실을 쓸 수 있지만 이분법적 성별 구분이 불편한 사람들이 성중립 화장실로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화장실로 성중립 화장실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면 성별로 구분되어 들어가기 전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이 성중립 화장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는 한 칸짜리 화장실을 만든다면 장애인, 아동, 성소수자 등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구성요소들이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요소들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타내 보고자 했습니다. 모든 발제를 마치고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베어리어 프리’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어리어 프리’는 ‘장애가 없는 건물’, ‘장애가 없는 도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건물과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물과 도시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도 누구나 어떠한 경계도, 장애도, 불편함도 없이 모든 것을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도 배리어프리, 유니버설디자인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제 2

공간, 이동, 위생에 대한 소수자들의 재구성이 가능할까?

나영정(타리)

퀴어 활동가, 장애여성공감 이사/정책연구원

지학: 다음 발제는 타리 선생님, 나영정 선생님께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타리: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이동 위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면서 저희가 직접 한 것이고 예전에 장애여성이 김지학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 화장실이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진정도 하고 그런 논의들이 장애계에서 있었고 그리고 지금 무장애 도시 이런 식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 공간 안에서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도로를 새로 까는 데 있어서 왜 울퉁불퉁하게 만들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제 또한 모니터링 하고 개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그리고 사실은 다른 분이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토론회 오면서 지금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과 “성중립 화장실”과 그리고 “여성의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분리 화장실을 얘기하는 각각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 영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기능의 문제나 어떤 공간 개선의 문제 혹은 설계의 문제 이전에 어떤 게 민주주의나 참여의 문제 그리고 도시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이 화장실이 좀 포함될 때 논의의 방향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워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 읽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시권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도시 철거민의 문제나 아니면 노숙인의 문제나 혹은 거리에서 불운하다고 지목되는 성별 규범 위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소수자들이 도시의 공간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도시 공간을 누리고 그리고 도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재현되고 있는가 질문과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자격을 누리면서 은폐되지 않고 계급적 억압에 저항하면서 정상신체중심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 도시라는 공간에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장애인 화장실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우리 활동이 이 화장실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라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권력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운동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도 봤던 것처럼 청소노동자가 쉬거나 밥을 먹는 장소가 되거나 혹은 청소도구들 보관되는 장애인 화장실 문제를 장애인 화장실 용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그 건물에서 누가 소외되었기에 그렇게 밀려서 장애인 화장실에 와 있는가 질문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화장실을 다목적화장실이나 가족 화장실로 바꾸고 있는데 사실 꺼림직해요. 왜냐하면 장애인보다 어린이를 내세우면 장애인화장실 쓰지 않는데 왜

만들어놨어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줄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를 먼저 내세우면 누구도 세금낭비나 이런 얘기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가족화장실에는 다양한 성별이 거기 안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왜 성별 위반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것은 가족들이 그곳을 쓰면 다양한 성별이 거기에 들어가도 정상적이고 안정화될 것이라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장애인화장실이 가족화장실이 대체되는 것이 사실은 뭐랄까 장애인화장실이 청소도구함으로 대체되는 것보다 더 좋은가 혹은 더 나쁘기라고 쉽게 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제문 안 저도 몇 가지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가족화장실의 의미 안에 남녀 사이에 어린 아이가 있고 그 옆에 장애인이 있는 이것이 가족화장실 이름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관습적인 재현들을 하고 있고 유의미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도시설계에 참여하고 접근성 마련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가 정당하게 공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장실의 기능성이나 포용성 등이 접근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이미 많은 장애인은 이용해 왔고 그리고 이용하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바꾸라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용하고 도전 받는 과정 없이 그 공간은 스스로 변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모두의 기능에 대처하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모두가 도시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본의 투입이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사람들이 종속되지 않고 아직 사회에 등장하지 못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누군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민주주의 문제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기능의 편리함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향할 때 정당화 되기 쉽다는 거죠. 파우더룸 같은 거 여성화장실에만 설치하는 것 그것이 여성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기능의 문제는 정상성 안에서만 향상되는가. 젠더비순응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기능의 편리함으로 포섭하는 것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화장실 문제는 기능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도시 안에서의 공중화장실 문제는 장애인 이슈가 아니었을 겁니다. 소수자가 도시의 공간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이동해야 하고요. 사실 장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집을 소유하는 것 보다 이동은 현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엘리트 장애인이 국회의원도 하고 집도 사고 자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랬을 때는 공중화장실 문제로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자기 화장실을 갖고 있고 충분히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집단이 이동할 권리를 가지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집을 점유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도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동할 권리를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곳에 적합한지 판단할 권력과 결부되고 어떤 몸이 이동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수단을 제공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이 좁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도시공간에 이런 장애인을 위한 그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가 이것이 효율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제와 격리의 억압 그리고 참여의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서울시가 촛불집회에 1만 2천 명이 모일 때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그것이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라고 남아있을 겁니다. 사실 그거는 서울시가 태극기 집회 할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촛불시민한테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고 이것이 사회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도시에서의 참여 평등 자유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계급 성별정체성 장애 인종이 배제되고 있는가. 이들이 이동하는 중에 어떤 문제를 겪는가 문제와 상당 부분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남역 사건 이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잠정적으로 젠더비순응자나 장애인 일단 기다려야 한다거나 안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시작하는 성별중립 화장실이 조율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다시 안전의 문제를 공간의 분리와 기능 규제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장애인 화장실 요구, 젠더비순응자들의 성중립화장실 요구는 도시의정상신체중심성과 이성애시스젠더중심성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화장실 문제이기 때문에 배려인 거고 권리 이전에 욕구인 거고 저항 이전에 생존이라는 것 또한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행위로서 이야기될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 배려의 문제로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생에 대한 키워드도 화장실이기 때문에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시에서의 위생은 정상성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일제시대 대부터 위생경찰이 많은 도시의 불량인들이나 더럽게 보이는 더러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의 더러움이 아니라 불운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더러운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리고 질병을 사람들도 더러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들을 도시에서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가 치안의 문제로서 이야기가 되어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위생이라는 감각을 생각할 때 이런 식의 경제적인 무언가 위험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반감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노상방뇨 하는 사람들이 싫죠. 왜 싫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노상방뇨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는 동료와 크게 싸운 기억도 있는데, 10년 전에.

사실 화장실에 오줌을 누는데 화장이 무슨 죄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게 에티켓의 문제이기도 하죠. 재채기를 할 때 소매를 가리지 않고 대놓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민감해져서 짜려보고 지하철에서 재채기 할 때 되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에티켓이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 노상방뇨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들죠. 나는 왜 급할 때 어디인가 찾아 들어가야 하니까. 이런 억울함도 발동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를 가장 화나게 했던 것은 취약한 상태로 서 있을 때 공격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까. 그 태평함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1분간 서 있을 수 있을까. 태평함이 권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 에 산책을 하다가 노상방뇨 하는 사람을 봤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규범적으로 저 사람 위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낮에 술 취해서 “노동자 풍”의 그런. 누구도 환대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하지도 않았고 지나가면 되는 길이고 그리고 이미 그 공간 안에서 어떤 가치 판단이 나와야 될지. 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환영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는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의 분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발제문에 TMI처럼 자세하게 묘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에 대한 공포라는 게 페니스에 대한 공포와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쾌감을 넘어 공포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다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거죠. 저는 그것이 싫고 혐오스럽고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문제인가 저는 그것이 싫고 혐오스럽고 폭력이고 공포라는 연결이 자연화 될 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마다 다를 수 있을 거죠. 그냥 싫은 사람 정도가 있고 되게 혐오스러운 사람 정도가 있고 되게 공포스러운 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고 저는 이것을 최대한 덜 공포스럽고 덜 폭력이 아닌 문제로 만드는 것이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노상방뇨 하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봐도 공포스럽다는 것은 사실은 그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삶을 제약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노상방뇨 하는 모습을 안 봄으로써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공포는 어느 순간에도 튀어나올 수 있고 사실 저게 별게 아니고 가서 욕하고 싸울 수 있는 문제고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선택지의 다양성이 그 공포를 저는 페니스 장치에 신체기관에 환원시키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장애인의 몸에 대해서 혐오스러움을 갖고 공포스러워하지는 않지만 싫어하는 그 감각과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체 형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를 가진다는 것은 저는 이상한 일이죠. 너무나. 그것은 잘 보고 만져보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뭔가 ‘더러울 것’이라고 전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생의 정

도는 장애여성공감 안에서 얘기해 보면 너무 위생도가 높아서 그 어떤 화장실도 쓰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위생의 정도 안에서 사실 누구의 기준에 맞출 것인가가 저희 공동체 안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기도 해요. 사실 이 위생에 대한 기대 자체도 굉장히 상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포를 갖기 시작하면 버스 손잡이도 잡을 수 없습니다. 누가 잡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하철에 앉을 수도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럽다, 위험하다, 공포스럽다’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부합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많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은 위생의 문제를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환원시킴으로써 그 사람을 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되게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혐오의 감정이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화장실을 갈 때 보조를 받아야 하는 동료들이 활동지원사와 관계 맺는 과정에서 내 더러움을 어떻게 노동으로 포함해서 잘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신체 내부를 다루는 의사와 신변구조를 다루는 노동이 이렇게 다르게 노동하는 사람에게조차 다르게 느껴지는가 이 감각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서도 위험하고 혐오스럽다고 하는 HIV 감염의 문제나 혹은 인종에 대해서도 백인은 깨끗한데 흑인은 더럽다고 여기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주의적 전제나 아니면 어떤 공간 안에서 노숙인이 더러움을 넘어서 사회 적응의 부재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인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도시 안에서 더러움과 규제를 당해야 하고 배제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같이 쓰기 싫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 문제는 어떤 정체성에게 어떤 공간을 할당하고 허락하는 문제로 축소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표백된 공중화장실에 누군가를 포용하는 문제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고 이동하면 뒤섞이고 뒤섞이면 공간의 성격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공적 공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잘해봐야 관리매뉴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시와 공적 공간에 대한 모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 질서와 권력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그랬을 때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을 시킬 것인가 구상이 함께 가야 합니다.

비싼 건물 중심으로 화장실 위생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 화장실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 도시 공간을 소유하거나 점유함에 따라서 주어진 이용 자격이 되는 것. 어떤 공간에는 어떤 규범과 질서를 체현하고 있는 신체에게만 입장이 허용되는 것. 주류질서와 불화하는 존재에게 불화의 책임을 돌리는 것. 그래서 화장실 이용을 위한 부담과 비용의 책임을 불화의 당사자에게 매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가 전복되지 않는 한 안전한 화장실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 여성이 진짜 공간을 피해자다움과 분리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다움과 미소지니, 여

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규범 위반자들을 여성화장실에서 몰아낸다고 해서 젠더 폭력이나 카메라가 근절되지 않고 이것은 규범만 강화할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위험의 존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위험을 느끼는 누구도 자유와 평등 그 무엇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하기를 강요한다면 평등은 영원히 이를 수 없겠죠. 공중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위험의 존엄성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를 복구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책임은 사회와 국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학: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이 토론회 만들면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모신 것입니다. 제가 단텔방 이름을 “화장실 어벤저스 팀”이라고 저장했습니다. 나머지 세 분도 너무 좋아서 정말 저는 감동 받으면서 원고를 읽었는데 선생님들 하나하나씩 궁금한 거 있으면 잘 적어놓으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제 3

베어리어 프리(BARRIER FREE) 화장실의 구성요소

심지선

전북장애인인권연대 활동가

지학: 이번에는 심지선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지선: 제가 마이크를 들고는 포인터를 조종할 수가 없어서.

지학: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지선: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화장실 어벤저스 팀”의 심지선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게 2015년부터거든요. 편의증진법이 개정이 됐고 그와 동시에 배리어프리라는 인증심사제도가 생겼는데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탁상공론의 한계구나 라고 느꼈어요. 당사자를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고 절실하게 느꼈어요.

발제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밥은 사람들 앞에서도 먹는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하루 정도 굶어도 괜찮다. 오줌은 다르다. 급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눌 수는 없다. 미리 눌 수도 없다. 조금씩 나눠 누는 걸로 상황을 모면하지 못한다. 내 지인은 모든 권리 가운데 ‘오줌권’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단언한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대소변을 봐야 하는데 그런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누군가는 대소변을 볼 공간이 있어도 잠겨 있고, 들어는 갔는데 너무 좁아요. 심지어는 청소도구로 딱 차 있어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몸의 기능상 대소변을 잘 참지 못해서 옷에 볼일을 봐야 하는 난감한 상황. 또 전등과 출입문 개폐버튼이 높아서 들어갈 수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을 끈 채로 문만 열고 들어가서 컴컴한 곳에서 볼일을 봐야 하는 상황. 또는 물 내림 버튼이 등 뒤에 있어서 몸을 등 뒤로 돌릴 수 없는 누군가는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자기의 더러운 오물을 변기에 담아둔 채 나와야 하는 민망한 상황. 요즘에도 등 뒤에 있는 버튼 문제를 제기했더니 센서로 작동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변기가 막혔을 때는 센서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물이 넘쳐요. 그 앉은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그 누군가는 앉은 자리에서 몸속에 오물이 다 침투가 되고 바닥이 흥건해질 때까지 비상벨을 누르고 싶은데 비상벨이 멀리 있고 높이 있어서 누르지 못하고 그 모든 상황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감내해야 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 저도 포함이 되고요. 수많은 장애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버튼의 높이와 위치. 대소변을 보는 공간의 넓이. 부속물의 위치와 높이 등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인권선언과 편의증진법, 배리어프리 등 법과 제도에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고민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배리어프리 화장실의 구성요소 그래서 어떤 것들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 정리를 해봤고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2015년 편의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13문항 연구 조사 후 의견서 제출**

**2015년 배리어프리 심사 기준 개선할 내용
12문항 연구 조사 후 의견서 제출**



비상응급벨 적정한 위치 선정

여기에서 볼게요. 2015년 편의증진법개정안 입법 예고가 됐어요. 문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13문항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의견서는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배리어프리 인증제도가 있는데 12문항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요즘 시뮬레이션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했는데요, 개정안에 나온 화장실 규격 사이즈가 1.6, 1.8m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실제 크기대로 스티로폼 보이시죠. 허접하기는 하지만 직접 그렇게 변기만 놓고도 해봤는데 전동스쿠터 보이시나요? 그걸로 한번 들어갔다 나와 봤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 혼자 돌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보시기에도 불가능해 보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볼 좀 꺼달라고 하세요. 문 좀 열어달라고 하세요. 도와주면 되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라는 미덕은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공간 나만의 공간에서 내 불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누군가 기다려야 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규격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응급벨의 적절한 위치와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바닥에 누워

서 해봤어요. 팔을 올리지 못하는 장애인이 누를 수 있는 위치가 바닥에서 40cm더라고요. 그 다음 전동스쿠터와 휠체어의 특징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스쿠터가 조금 더 커요. 그러면 전동휠체어 기준으로 할까요? 스쿠터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 특징



보급형 스쿠터 전장 1.4m 전폭 0.68m
한번에 돌아 나오려면 3.2m 필요

《 의료용 스쿠터 나드리 디럭스 4W 》

- 특징
- 전장 1.400mm
- 전폭 660mm
- 중량 139kg(배터리 포함)
- 동관각도 10도
- 타이어 13 (전, 후)
- 회전반경 1,000mm
- 최대 속도 15km/h
- 최대주행거리 35km(전전)
- 배터리 55Ah
- 출력기 최강압 5A
- 색상 티타늄 실버
- 승차하중 130kg

소티자가 : 2,3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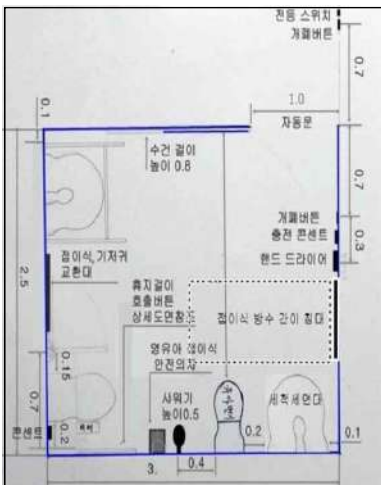
보급형 전동 휠체어 전장1.13m 전폭0.65m
한번에 돌아 나오려면 1.6m 필요

1)바디

전장*전폭*전고	1,130mm*650mm*1,220mm
최대 속도	10km/h
체중중량	100kg (배터리 포함)
동관각도	10도
최중하중	130kg

중량거리 30cm
장전화전 310mm
배터리 12V, 55Ah
타이어 구동휠(14"), 조향휠(9")

그렇죠. 큰 거를 기준으로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행법상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가능한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돌아나오려면 3.2m가 필요해요, 구조상. 스쿠터는 회전반경이 더 크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규격이 필요할까 해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세한 도면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한번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와 현재의 문제점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활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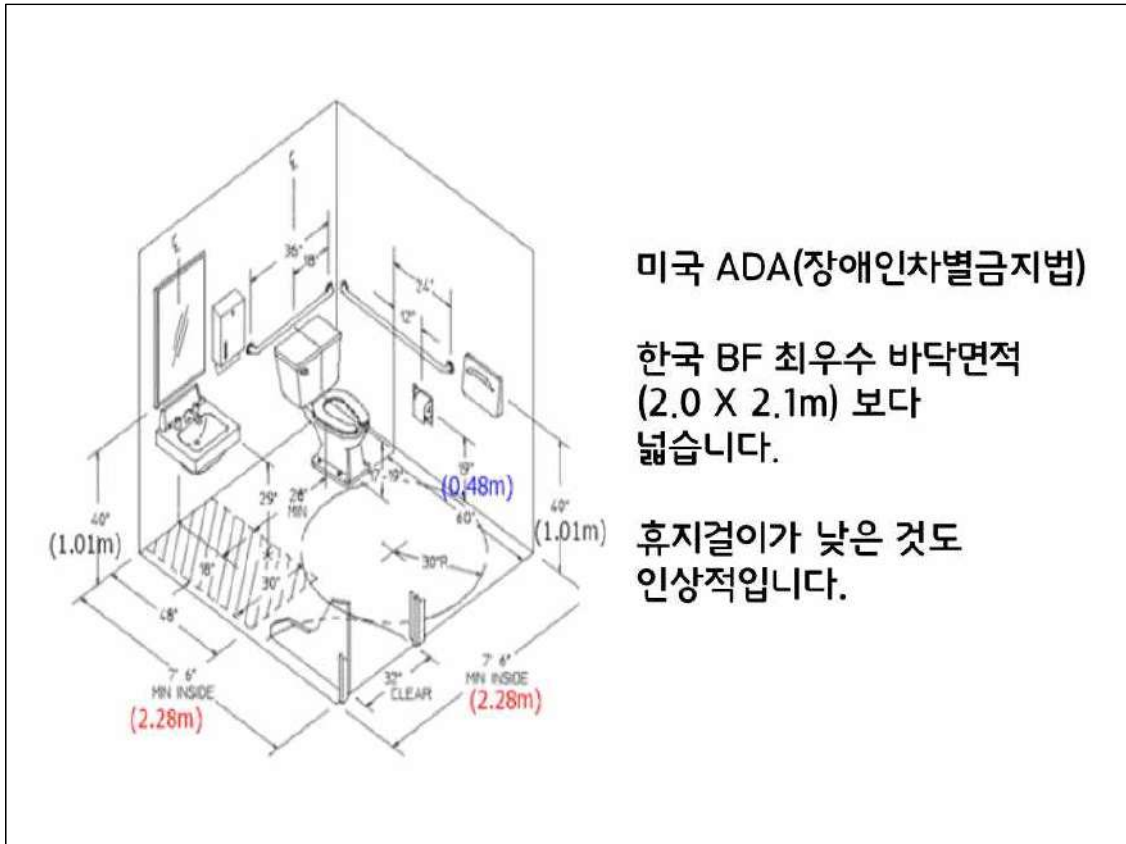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효 바닥 면적이 1.6m 이상 깊이 2.0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맨 밑에 활동 공간. 휠체어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활동공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법에는 전동휠체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휠체어라고 명시했는데 지금 수동보다 전동휠체어 타는 분들이 더 많고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은 사용에 불편함이 많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스쿠터인 경우
들어갈 수는 있으나
회전이 불가능하고
전동휠체어는 세면대 없이
회전할 수 있으나
세면대를 넣을 경우
회전하기 힘들며
법적인 활동공간인
1.4×1.4미터를 침범합니다.

**세면대는 요루 장루 장애인들과 그 외 장애인들의
신변처리를 위해 화장실 내에 설치가 필수입니다.**

법에 나온 대로 한 번 해봤더니 스쿠터는 들어갈 수 있지만 회전이 불가능하고 전동휠체어는 부속물이 없을 때는 회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필수적인 거잖아요. 세면대를 넣을 경우에는 공간이 작아지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미국 ADA(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 BF 최우수 바닥면적
(2.0 X 2.1m) 보다
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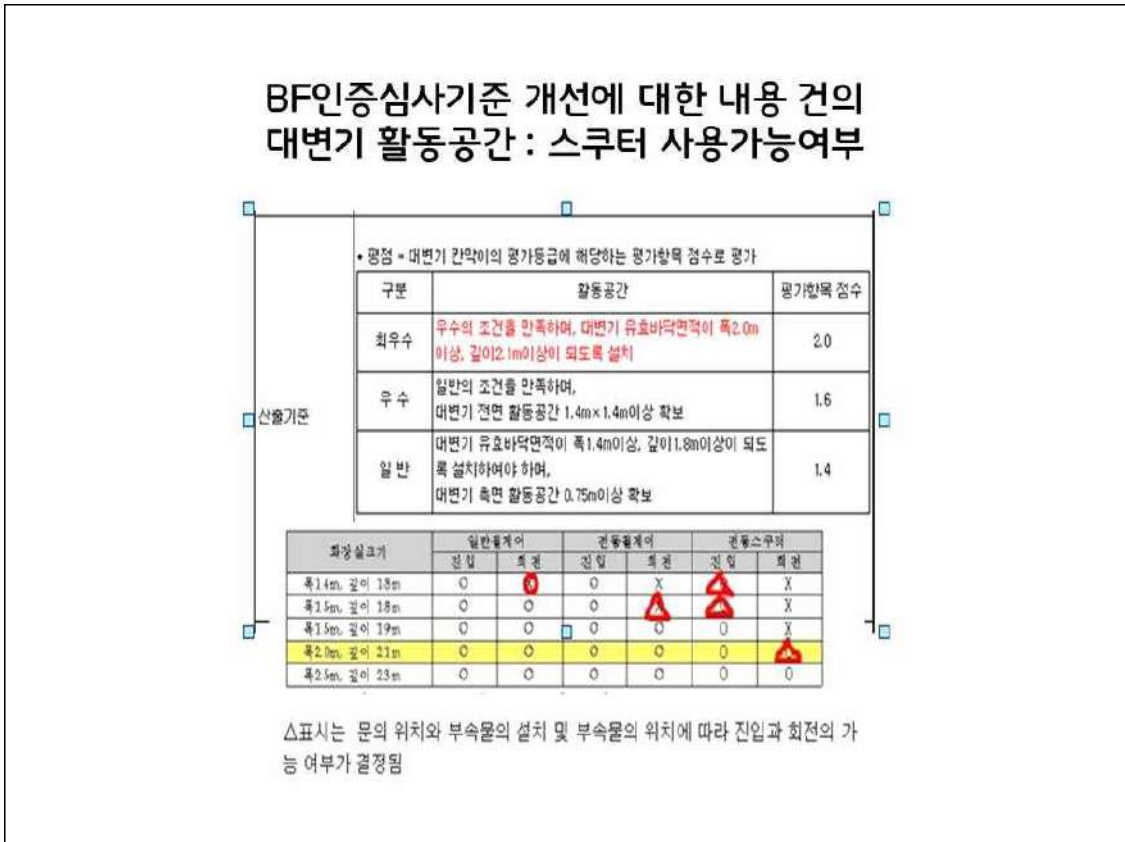
휴지걸이가 낮은 것도
인상적입니다.

미국은 ADA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법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요. 사이즈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2.28이면 거의 3m라고 보시면 돼요. 3m, 3m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 정도면 스쿠터를 타고 돌아서 나올 수 있고 규격이거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게 휴지걸이. 휴지걸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너무 높이 있어서 휴지를 쓰지 못하고 그냥 나와야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 느낌 느껴보세요. 끔찍하시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휴지걸이가 바닥에서 50cm로 굉장히 낮습니다. 변기랑 거의 같은 높이거든요.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요. 질문드릴 게 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설치해 놓으면 비장애인이 불편하실까요? 제가 이걸 건의하면서 어떤 공무원하고 싸웠어요. ‘도대체 왜 당신은 당신들 입장만 생각을 하나. 비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 하겠냐’라면서 저한테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면박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그렇지.. 우리 생각만 하면 안 되지. 비장애인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제로 키가 크신 분께 여쭙보기 위해서 저희 동네에 키가 1m 98cm 되시는 분을 찾아뵈었어요. 전자매장에 자동문 버튼이 있었거든요. 자동문버튼이 높아서 못 눌렀어요. 요구한 높이가 휠체어 팔걸이 기준으로 80cm인데 그분께 ‘여기 80cm 정도에 버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만 눌러 주세요.’ 그랬더니 쓱 팔만 스치니까 눌러지는 거예요. ‘불편하세요?’ 여쭙봤더니, ‘뭐가 불편해요? 더 편하구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말은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ADA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화장실보다 열악하더라고요. 볼일을 못 보는 구조더라고요.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는 BF 인증 제도 지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최우수 등급 보이시죠. 유효 바닥 면적이 2.0 이상 길이가 2.1 정도 되도록 설치했을 때 평가항목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로 표시는 문의 위치와 부속물의 설치, 위치에 따라 진입과 회전의 가능여부가 결정되는데 해놓고 보니까 폭 2.5, 길이를 2.3 이었을 때 가능하다고 동그라미 되어있죠? 절대 가능하지 않았어요.

넘겨주세요. 이대로 제가 한번 해봤고 스쿠터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국지체협회에서 이미 실험을 했었어요.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다시 한 번 해봤어요. 4번 이상 전후진을 반복 해야지만 간신히 나올 수가 있었어요.



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의 부속물 배치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사용의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면적은 폭 2.5m 이상, 깊이 3.0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안에 뭐가 있어요? 달랑 변기와 세면대가 있어요. 화장실 보시면 부속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분들 입장에서는 부속물들이 많으면 나왔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부속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않아서 공간을 침범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기타 설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부속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안내도와 점자해설판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출입문 사이즈 쉽게 말씀드려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문이 넓어야 해요. 현행법에는 0.9m예요. 전에는 0.8m이었는데 자꾸자꾸 건의를 했더니 조금 넓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0.9일 때는 양쪽으로 10cm 여유밖에 없어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올 때 얼마나 불안해요 혹시 부딪힐까 긁힐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동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은 팔 움직일 공간도 필요하죠. 최소 1.0cm 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자 조작 설비 중 버튼들의 높이입니다. 버튼들의 높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많은 사람이에요. 개폐버튼 높이는 낮은데 전등이 너무 높아서 불을 못 켜고 들어가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머리로 누르기도 하고 누가 지나가면 눌러주기도 하고 급하면 불을 끈 상태에서 들어가서 불일을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개폐 버튼 높이 있어서 아예 못 누르고 그냥 다른 데로 찾아다니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버튼 높이를 0.7~0.9m로 요구 했고요. 그 사이가 0.8이잖아요. 0.8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용자 조작설비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수동 휠체어 팔걸이 높이 0.6m

전동 휠체어 팔걸이 높이 0.7m (제품마다 다소 차이 남)

팔을 올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고려0.7~0.9m 적당하며
 곤란할경우 1.m로 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마크가 붙어
 있는곳만 0.9~1.2m, 최대 1.4m이고 건설법적으로도
 높이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모든 스위치 높이는 1.2~1.4 m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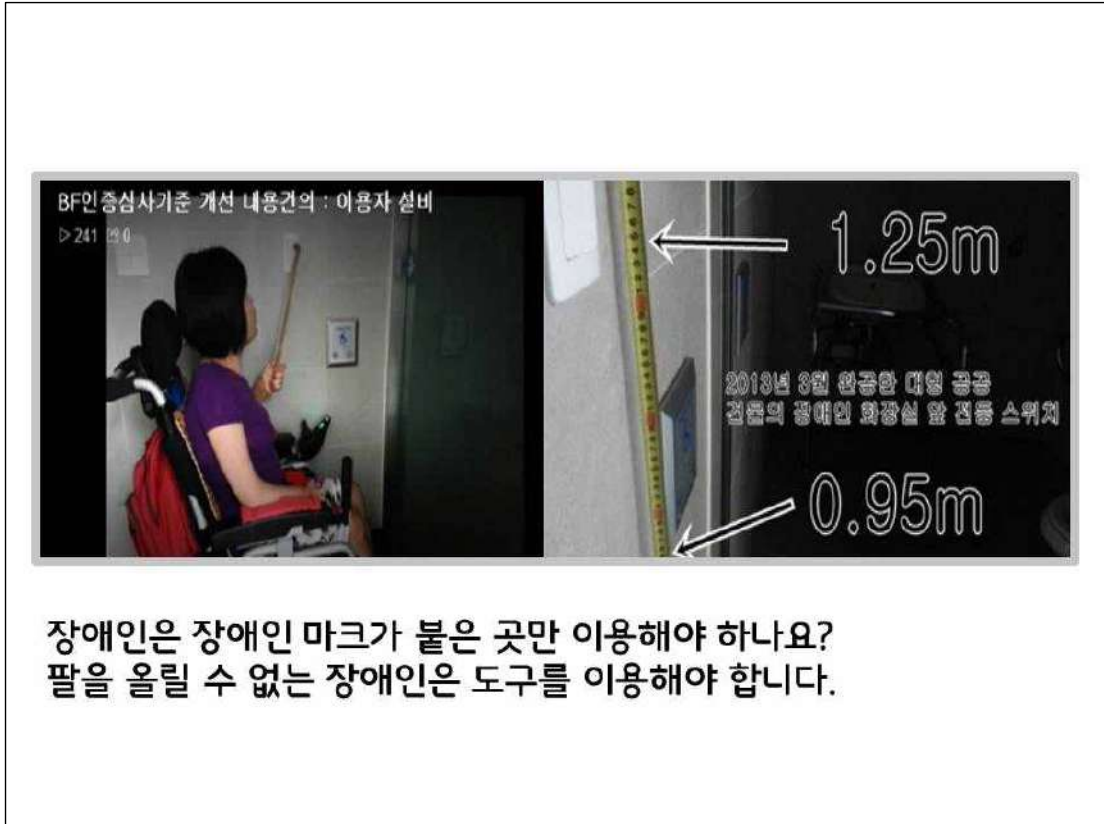


높이 1.4m는 어린이에게 발판이 필요한 높이



누군가는 사용불가능

현행법에는 저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감수성이 없으신 분들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은 통상 버튼 높이를 1.2에서 1.4로 설치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지나가다가 몇 센치인지 관심 가져주세요. 높이 1.4m는 어린이 발판이 필요한 높이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높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을 굽는데 쓰는 효자손 같은 도구를 들고 다니는 장애인분들도 계십니다. 저 화면의 버튼 0.9m예요. 거기서는 간신히 누를 수 있었는데 전등 스위치를 누를 수 없어서 깜깜한 데서 볼 일 본 적이 많죠.



**조작반이 문 가까이 있는 경우
몸을 앞으로 숙여서 사용하기 불편하고
문이 닫히면서 휠체어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전면부에서
몸까지 거리를 고려해 문에서 0.6~0.8m 떨어져야 합니다.**

화장실 문과 벽이 직각으로 되어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발판이 있어요. 발판이 있기 때문에 몸을 숙여서 문을 닫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몸을 숙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하느냐면 0.6에서 0.8m가 떨어져 있어야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도 누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질과 마감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장애인 복지관 화장실에서
목발을 사용하시는 분이 나오실 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바닥타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질과 마감 부분인데요. 화장실은 대부분 미끄러워요. 그런데 저기 지금 서계시는 목발 짚으신 분은 너무 미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고 덜덜덜 떨고 계세요. 저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죠. 저는 제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저것도 심각하다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원래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미끄럼 마찰 계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명확하게 강제 규정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국회도서관 화장실도 그랬었어요.



국회 도서관 장애인 화장실: 벽이나 바닥이나 별차이가 없다.
현재 거의 모든 장애인 화장실은 광택만 나지 않을 뿐
현행법 위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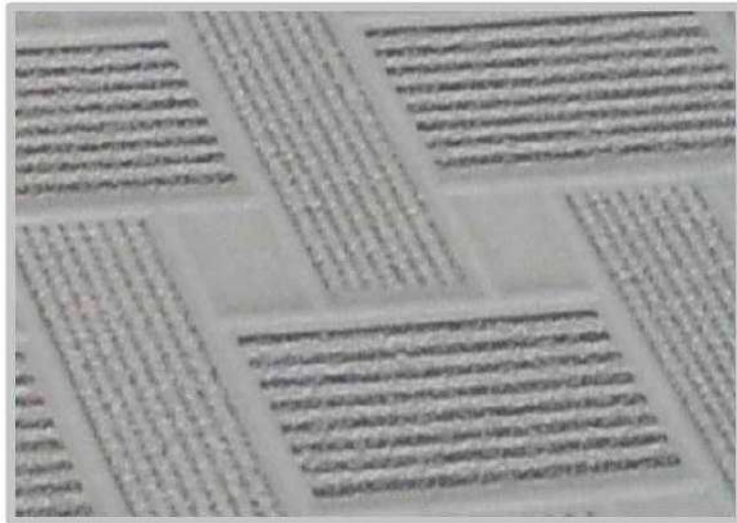


서울 이룸센터
장애인 개발원 로비

광택나는 타일이었지만
미끄럽지 않게 표면을
깎아내어 회색이며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서울이룸센터 가보셨어요? 이룸센터 가보시면 원래 전체가 반질반질한 바닥이었어요. 전에 어떤 장애인분이 목발을 짚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목발 짚고 가시다 미끄러지셨어요. 지금 그분은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장애인, 더 중증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 뒤에 이룸센터에서 반질을 깎아냈어요, 까칠까칠하게. 보이시죠? 한쪽은 광택이 나고 한쪽은 광택이 없어요. 미끄럽지 않도록 깎아놓은 거고 카펫도 깔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가 죽어나가거나 다쳐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만 변하는지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미끄럼방지 기능이 잘되어 있는 타일 화장실용으로 추천



이런 타일로 해야지만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줬나?’고 물으면 ‘청소하기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 기준에 맞춰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까요?

그렇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저는 장애인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비장애인이잖아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평생 손을 높일 수 없고 걸을 수 없어요. 저는 못하는 거예요.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장애인들은 그런 게 별로 제약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쪽에 기준을 맞추는 게 맞겠죠. 장애도 마찬가지로 봐요.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에게 맞춰야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신 장애인등을 위한 접이식 간이 침대
누워서 신변처리를 할 때 필요함

여기 작년엔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에 있는 고속도로 화장실이에요. 고속도로 화장실에 어떻게 있었냐면 전신장애인을 위한 침대가 있었어요. 전신장애인들은 누워서 볼일을 보시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룸센터가 딱 하나 있어요. 또 중요한 거.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면대가 있어요. 장루요루 장애인에 대해서 아세요? 그분들은 화장실에 세면대가 꼭 필수거든요. 왜냐하면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주머니로 대소변이 쌓이면 그걸 비워줘야 되고 씻어줘야 하거든요. 일반 세면대는 좀 깊이가 낮아서 오물이 될 수도 있고 깊이가 긴 세면대는 버려도 튀지도 않고 깔끔하게 잘할 수 있어서 저거는 손을 씻는 세면대고 장루요루 세면대가 여기 지금 안 나오나? 그리고 일본에는 세면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나라는 나라가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정장치나 휴지걸이 등은 법에 0.6~0.9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0.2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의견서 제출할 때 누울 수 있는 0.3m를 주장했는데 두 가지로 명시를 해주셨더라고요. 0.6~0.9m으로 되어 있을 때 위험한 것은 무엇이나 하면 0.9m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못 누르면 거죠. 다행히 0.2m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휴지걸이 나왔고. 아까 나온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똑같은 말 또 나왔어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강조한 거예요.



휴지걸이

위치와 높이가 제각각이고
높이 설치된 곳이 많아
팔을 올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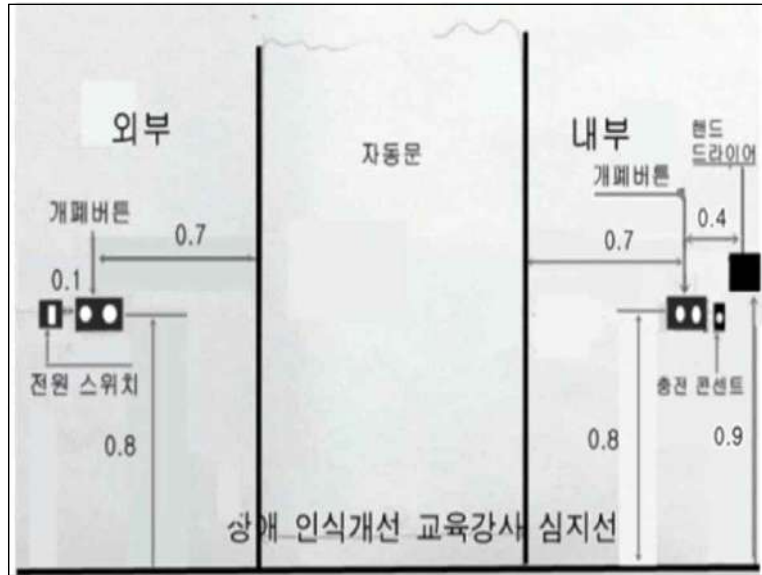
변기 전면부에서
휴지 배출구 중심까지
높이 0.5m가 적합합니다.

현재 응급벨의 위치는 제각각이며 손을 올리지 못하는
장애인이 사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벨은 응급시 빠르게 편하게 누구나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핸드 드라이어도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화장실에서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해본 역사가 없어요.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어때요? 한번 알려주세요. 높아가지고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손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높이로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몇 cm? 50cm? 50cm는 조금 낮아요. 몇 cm? 80cm.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딱 좋겠죠. 넘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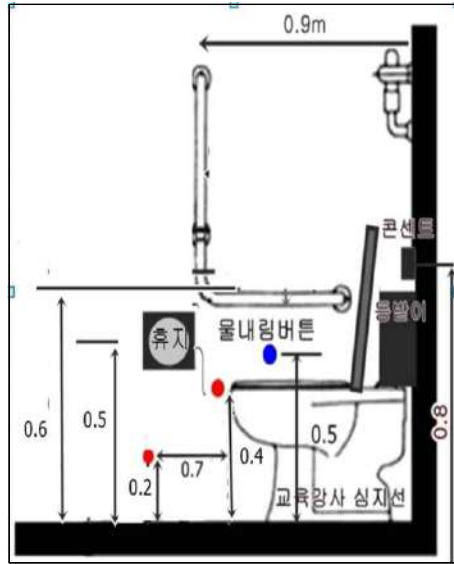
이 도면은 뭐냐면 화장실 자동문 외부와 내부에 있는 조작법 높이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들어갈 때는 밖에서는 0.7인데 들어갔더니 0.9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동으로 물을 내려 달라는 문구입니다.

수동장치가 변기 뒤에 있어 허리를 돌리지 못하는 장애인과 팔에 힘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변기 중앙부 높이 0.5m부분에 물내림 버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기 물내림 버튼이 뒤에 있어서 물 못 내린다고 했죠. 옆에. 그렇죠. 옛날에는 옆에 많이 있었거든요. 없어지고 있어요. 왜? 좋은 건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바닥에 있었어요. 아세요? 휠체어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화장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옆에서 누를 수 있고 바닥에서 누를 수 있어야 하는데 센서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센서가 위험해요 결사반대예요. 아니면 수시로 변기가 막혔나 안 막혔나 관리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는데 그러지 않을 거면 센서 설치하는 반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면을 그려봤거든요. 버튼의 높이, 휴지걸이 높이.



서의 해외사례(일본) - ②



**장루 요루 장애인용
세척변기
(생리컵 사용자에게도 편리)
오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고
세척에 용이 합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모두 작동 가능한 비데 필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세면대 나오네요. 깊이가 깊어요, 세면대가. 저는 이 용도를 모르고 걸레를 빠는 것인 줄 줄 알았어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것이고 일본 고속도로 화장실에 197군데나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할 때 선심 쓰듯이 특별하게 해주거든요. 장애인 콜택시도 특별 교통수단이거든요. 저희한테 해주는 건 특별한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콜택시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고 필수적인 거잖아요. 보편적인 건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해 줄까. 일본은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오사카에 다니는 버스 500대가 다 저상버스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서비스의 개념인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마인드가 놀라웠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오사카와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는데 편의시설 사례를 가지고 전북도청에서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전북도청에서 어떤 약속을 해주었냐면 장루요루 장애를 위한 세면대를 설치하고 버튼을 발 높이 버튼도 설치하기로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든 버튼이 발 높이에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전주에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었고요. 비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비데는 작동할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쪽이예요? 보통 오른쪽이죠. 오른손잡이가 많이 때문일 텐데요. 장애인 중에 왼손잡이도 있을 수 있고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그 중에서는 몸을 돌릴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분이 비데를 사용하고 싶는데 오른손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몸을 이렇게 돌려서 누를 수 없던 분이었던 거예요. 비데를 사용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을 불러서 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데도 양쪽 손으로 다 작동할 수 있게 양쪽에 조작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구요.

여기 계신 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아이디어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을 장애가 없는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뭐냐면 똥오줌을 참는 거였어요. 제가 혼자 못하니까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매번 요청하기 너무 미안하고 또 가장 정말 수치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너무 참아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어떻게든 안 싸려고 참다참다 안 되면 저도 모르게 나와요. 저도 지금도 계속 방광염에 시달리고 있고. 어디를 나가도 화장실 잘되어있나 안 되어 있으면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려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화장실 문제는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학: 네,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심지선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타리 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시민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또는 배제할 것인가 누구를 소비자로 고객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누구는 거절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화장실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발제는 루인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제 4

화장실이라는 어려운 공간

루인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연구원

루인: 루인입니다. 앞에 두 선생님 말씀을 반복하는 수준의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라 민망해서 굳이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일단 그래도 준비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법한 성중립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관련 논의가 나오면서 많은 분이 알게 된 2007년 인권활동가대회에 참가했던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령이가 설립되었고 2007년 2월 즈음 처음으로 인권활동가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많은 활동가가 참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랬는데,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지령이 활동가들이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날이 흥미로웠던 것은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트랜스젠더에게 화장실은 이미 불편한 공간이었고 항상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트랜스라면 겪는 여러 불편함, 차별, 어려움 중 하나겠거니 하며 지내왔죠. 언젠가 지령이 운영회의를 하고 나서 뒷풀이를 갔는데, 뒷풀이 장소에서 술이나 음료를 마시다보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두 불편함을 겪었지만 누구도 화장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활동가대회 자리에 모인 지령이 활동가들은 그날 유난히 이상하게도 화장실의 불편함을 이야기 했죠. 너무 불편하다, 이 불편을 이야기해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활동가대회 기획팀에 지령이의 의견을 전달했고, 마침 오리엔테이션 자리였기에 모두와 함께 지령이의 트랜스 활동가들의 불편함을 공유하고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층 화장실은 분리 화장실로, 3층 화장실은 표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칸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때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장실과 관련한 논의가 지금까지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 지령이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참가했던 활동가들의 감수성과 윤리적 태도가 만든 결과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정말 그 분들 짱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 성중립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의의 시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지금의 논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점은 불편함, 앞서 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불편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문제로 말하기 시작하는가, 불편함이 문제거리가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불편했지만 참고 말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과정이요.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고, 이 문제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를 이야기하며 불편함을 말할 수 있죠. 2007년 인권활동가대회를 기점으로 화장실은 지령이에게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활동가대회 이후 행사가 있거나 강의를 있을 때 화장실이 야기하는 불편함을 말했고, 트랜스젠더퀴어가 화장실을 통해 겪는 불편함을 말하는 캠페인이나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많이 했던 이야기가, 트랜스젠더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가.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ftm/트랜스남성이 남성으로 통하는 상황일 때, 남자화장실에 좌변기는 없고 소

변기만 있을 때 그 화장실은 이용할 수 없고, 여자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트랜스는 어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공간들이 이원젠더화된 상태일 때 이 공간에 어떻게 출입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도록 하죠.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줄 모르겠는데 <첫외출>이라고 하는 짧은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본인을 트랜스로 재정체화하면서 한동안 집에서만 지내다가 오랜만에 외출을 하며 겪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영화 주인공은 머리를 자르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연출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어느 높은 건물 옥상에서 촬영하며 이 많은 건물 사이에 내가 이용할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구나라는 암담함을 절묘하게 포착해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데, 앞서 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듯 외출을 한다는 것은 화장실과 관련한 사건을 겪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각오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외출했을 때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음료를 일절 마시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카페 목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이 카페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 그 카페로 가야겠다는 식이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없는 경우 외출 자체를 포기하고 안 나가겠다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혹은 친구와 만나거나 애인이 있어 애인과 외출할 때, 그리고 친구나 애인과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면, 친구나 애인에게 화장실이 어떤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인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만약 혼자 가기 애매할 때는 언제나 하는 말이 '같이 가자'입니다. 화장실을 출입할 때 발생할 장벽을 줄이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애인이거나 친구인 거죠. 트랜스여성과 비트랜스여성이 연인 혹은 친구 사이이고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트랜스여성에게 누군가가 시비를 걸었다면 트랜스인 내가 나를 '나는 여자다'라고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파트너나 친구가 '언니 무슨 일이야?'라고 한 마디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한국 사회에서 젠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무엇이 사람의 젠더를 인식하도록 만드는가를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의 젠더를 보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하죠. 아무려나 혼자서는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하기 어렵기에 발생하는 무수하게 많은 경험이 트랜스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상황인데 외출을 하면서 물을 충분히 못 마실 때 다양한 질병에 걸리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외출이 제한되고 외출 자체가 곤란한 일이 될 때, 공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회에 적절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령이 때의 화장실 의제와 지금의 논의 방식에서 차이라면,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에 가깝지만, 그 시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어쨌든 화장실이 트랜스젠더에게 어려운 문제고 그렇기에 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봐야지 않겠느냐라는 식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논의 방식은 화장실을 둘러싼 논의는 트랜스젠더만의 어려움에서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성별이분법을 재생산하고 있고, 계속해서 몸의 형태

와 상태를 규제하고 기존의 규범을 강화하는 방식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몸과 신체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정상을 질문하고 있죠. 이것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이야기할 때 많이 논의되고 있죠. 성중립 화장실을 둘러싼 논의에서 공간이 어떤 몸 규범을 재생산하는가, 누가 특정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문제는 사실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쇼핑몰 등 여러 다양한 공간에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익히 아시다시피 옷가게만 가도, 누가 이 옷을 입을 수 있고, 누가 어떤 옷을 선택할 수 있느냐를 두고 젠더 규제가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화장실이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성이지만 머리가 짧은 어떤 사람이 카페에서 화장실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물어보러 갔더니 남자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난감했다는 경험 등 화장실의 이원젠더체계는 트랜스만이 아니라 레즈비언 부치 등 많은 사람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장실 논의는 레즈비언 부치도 불편을 겪으니 부치도 포함하고, 또 다른 불편을 겪는 사람도 포함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불편함이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 연루되어 있고, 이 연루됨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인가라는 식으로 논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와 지금의 논의 방식이 갖는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하는 의제가 적극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고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성별 구분 없이 하나만 설치했다가 운동을 통해 다시 성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성별 구분 화장실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화장실의 필요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기존의 여성성과 남성성 규범,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에 대한 규범을 생산하고 그 규범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지요. 그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차별을 야기할 때 동시에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억압과 차별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논의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페미니즘과 매우 긴밀하고 그리고 서로 적극 동의하며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성별 이분법을 재생산하는 곳이 학교와 같은 곳으로 그치지 않고 화장실과 같은 곳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확장할 수 있고 페미니즘과 트랜스 운동이 적극 연대할 수 있고 동일한 의제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탈코라는 중요한 운동이 등장하고 있고 이 실천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적극 논의되고 있는데요. 화장실 의제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탈코와 화장실 논의는 서로 잘 만나서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코 운동을 하는 집단이 트랜스를 배제하거나 적대하는 집단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겹치면서, 바로 그 집단에서 트랜스의 여자 화장실 이용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문젯거리로 만들고 있죠. 트랜스여성의 여자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원젠더 규범 자체를 문제 삼고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나갈 것인가, 기존의 젠더 질서를 어떻게 문제 삼을 것인가를 논하고자 하는데, 탈코 운동 혹은 트랜스 배제 진영에 의해 마치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이상한 트랜스여성이라는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을 야기합니다. 물론 이 불안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기는 합니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논쟁이라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 불법 촬영을 문제 삼으면서 불법 촬

영에 대한 불안은 매우 자주 화장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데요. 이때 성중립 화장실 혹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을 근거로 상상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 혹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둘러싼 사람들의 상상력은 대체로 술집에 있는 매우 좁고 더럽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용화장실이라고 분류해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좁아서 휠체어는커녕 가방을 매고 들어갔다가 몸을 돌리려고 하면 가방이 벽에 걸리는 그런 곳, 불은 매우 어둡고, 문이 잠길까 의심스러운 장치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문을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죠. 이런 공용화장실이 성중립 화장실 혹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둘러싼 논의를 할 때 이들 화장실을 우려하는 이들이 말하는 불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중립 화장실이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의를 앞서 일단 그 자체로 개선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고민해보면 화장실은 건축물을 설치할 때 가장 나중에 고려되는 공간이죠. 마치 건물이나 공간을 구성할 때 화장실은 어쨌거나 하나 정도 있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만들기에 늘 좁고 구석지고, 불안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어떻게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라는 기획에서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공용화장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가 될 때, 그렇다면 공용화장실 이용이 주는 불안을 통해 성중립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어떻게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화장실을 둘러싸고 안전을 이야기할 때 트랜스가 여자화장실을 쓰면 불안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은 트랜스여성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고 있는가와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디어에서 주로 재현되는 트랜스는 하리수 씨와 같이 매우 여성스럽지만 화장실 논의에서 주로 재현되는 트랜스여성은 근육질의 거구거나 혹은 그냥 남자처럼 보이는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트랜스여성이 여성성을 강화한다고 할 때는 여자보다 더 여성스러운 모습이고 화장실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초남성성을 실천하는 사람처럼 재현될 때 이것은 트랜스가 어떤 식으로 상상되고, 범위가 어떤 식으로 상상되는지를 질문하도록 합니다.

사실 트랜스가 범죄자로 상상되는 것은 오랜 역사가 있는 상상력이죠.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 <양들의 침묵>에서 연쇄살인범이 트랜스여성이고, 트랜스는 연쇄살인범, 가장 부정적 의미에서의 정신병, 위험하고 부정적이라는 방식의 재현은 미디어에서 계속 재현된 이미지입니다. 실제 이런 재현에 부합하는 트랜스가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트랜스를 둘러싼 논의에서 소환되고 재현되는 트랜스의 이미지가 어떤 식인가, 그리고 이것이 논의 자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되도록 하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안전을 이유로 트랜스를 배제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안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안전은 분명 중요한 의제입니다. 퀴어 운동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자 운동의 목표 중 하나는 트랜스나 퀴어들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에게 안전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고 감각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이때 안전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왔을 때, 한국 사회는 갑작스럽게 매우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안전은 어떤 식으로 구축될까요? 이것을 화장실에서 트랜스여성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식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실 안전에 대한 요청은 지극히 규범적이고 지배 질서를 재소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가, 이를 테면 단일민족이라는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가. 단일민족이면 안전한데 타민족이 와서 위협해졌다는 식으로요. 그리하여 타종교,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안전이 소환되죠. 마찬가지로 인간을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감각에서 요청하는 안전은 무엇을 생산할까요.

이 안전이라는 말을 통해 어떤 규범적인 질서를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누군가가 없어져야 한다, 배제해야 한다는 말로 논의를 중단시킬 때 이것은 어떤 고민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화장실을 새로 만들면서 건물 중간에 설치했다고 작년 인권포럼에서 발표하셨습니다. 보통 화장실을 떠올려보면 많은 경우 화장실은 건물의 양쪽 끝에 있거나 건물 바깥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길목은 좁고 어둡죠. 이 구조는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 때 필요한 상상력 중 하나는 화장실을 건물의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면 성별 구분이 아니라 건물의 어디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돈이 많이 든다, 경제적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그렇게 중요한데 왜 화장실에 그렇게 돈을 안 쓰려고 하는가. 왜 화장실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만들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이 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원고를 풀지로 제출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과 함께, 풀찌로 냈던 이유 중 하나가 아웃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면 원치 않게 자신이 성소수자인 것이 드러날 수 있고 아웃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터뷰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는 지속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이 이야기의 한 축에서 아웃팅에 대비해서 어떻게 화장실을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가 있고 다른 축으로 아웃팅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가 있겠죠. 성중립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화장실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동시에 한 번에 모든 화장실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바꾸어 나갈텐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성중립 화장실 이용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두 선생님께서 충분히 잘 말씀해주셨듯, 장애인 화장실은 빈번하게 고장 나있고 그래서 사용 금지 푯말이 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있지만 쓸 수 없게 되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꾸준히 잘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 때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학: 감사합니다. 루인 선생님 원고 마지막에 보시면 성중립화장실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의는 그 결이 좀 달라서 하나로 논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성중립 화장실’로만 만들고자 한다면 방금 얘기 나눴던 모든 구성품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 없이 그저 변기와 세면기만 있는 ‘성별 구분없는 화장실’로 간단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사람들의 머릿속에 성별이분법이 확고하고 둘 중 하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어느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화장실 두 개는 그대로 두고 또 하나의 화장실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별도로 만들었을 그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예산 때문에 불가능하다’ 등 여러 가지의 저항을 받을 것인가? 둘 다 어떤 게 더 쉽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같은 이유로 더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논의지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화장실 모델로 확정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시간도 아니고 다양한 화장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다양한 상상이 필요한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든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희 쌤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 방향들 그리고 법안들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 제 5

**성별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조건과
해외의 사례들**

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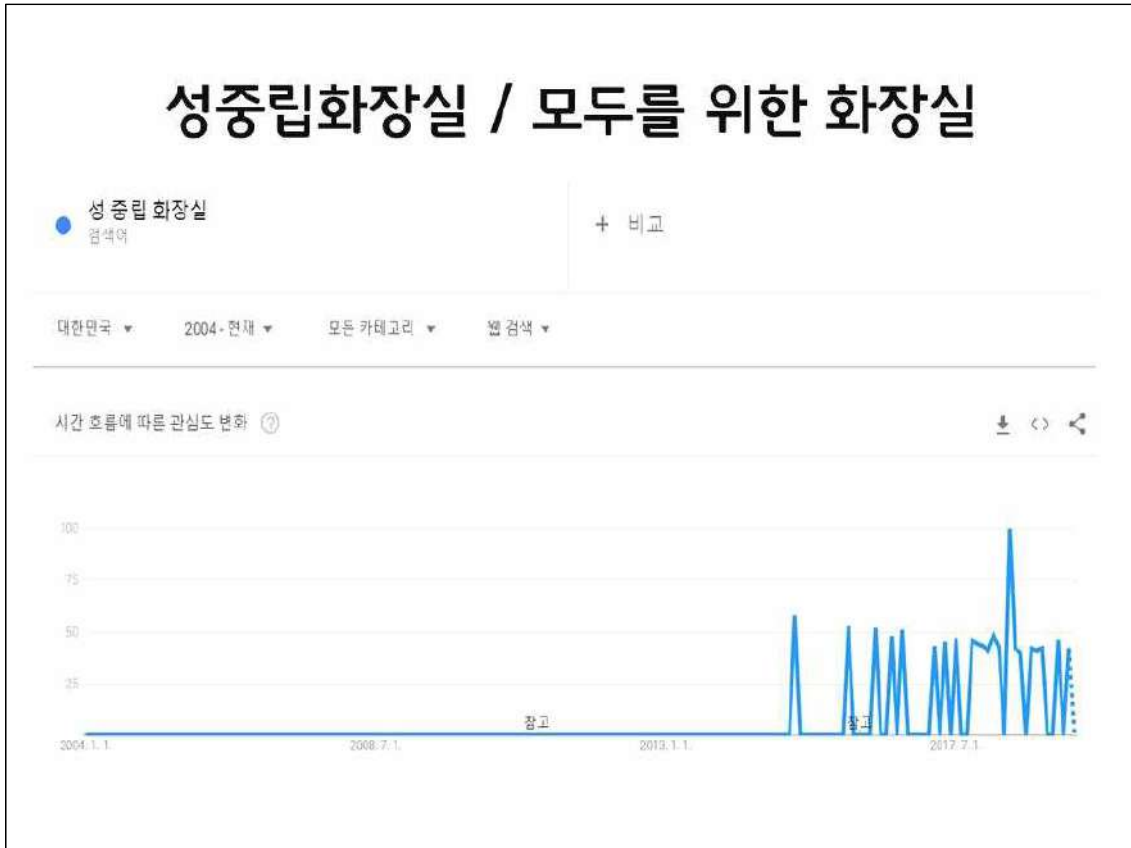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한희:시간이 많이 지난 거 같아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조건과 해외 사례들인데 성중립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다른 점은 성중립 화장실은 성별 구분해서 장애인도 있고 신체구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라서 이거 하나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장애나 이런 거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을 해서 어떤 화장실이 되어야 할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별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조건과 해외 사례들

박한희(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은 꽤 많이 알고 있기는 한데 아까 루인이 말했듯이 2007년부터 인권활동가들이 논의가 되어 왔지만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건 2015년, 2016년대인 거 같아요.



구글 검색어 수치를 보여주는 구글 검색 트렌드인데 거기 안 보이다가 2014년, 15년부터 나오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2012년부터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는 승소가 되면서 언론에 나오다가 2017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용화장실에 대한 공포와 여러 가지로 섞이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제 문제는 기사를 보면 공용화장실 섞여서 나오고 어떤 것인지 제한된 이미지만 몇 개만 나오는 것이고 사실 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봐야 하는데 아무도 실제로 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배리어프리 모두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겠다 했었어요. 설치를 해보자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 최종안은 논의 과정에서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상태인 상황이라서 사실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두를 위한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실제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장실의 성별 분리가 갖는 문제



2011년 화장실이고 되게 익살스럽게 표현된 화장실 마크로 많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합성시켜서 성적으로 돌아다니기도 하는 마크인데요. 사실 노골적이죠.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해야 되나 재미있네 하하하 웃을 수 있는 얘기인가. 성별 구분 화장실 자체가 성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만드는가 자체가 재생산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별에 대한 규범을 계속 만들고 고정시키고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화장실의 성별 분리가 갖는 문제

[표 114] 공중화장실 이용시 차별 경험 (복수응답) : 트랜스젠더

단위:명(%)

	여성 (MIF)	남성 (FTM)	전체
차별 경험 있음	18 (52.9%)	16 (37.2%)	34 (44.2%)
불쾌한 시선을 반복적으로 받음	16 (47.1%)	15 (34.9%)	31 (40.3%)
모욕적인 발언을 들음	5 (14.7%)	10 (23.3%)	15 (19.5%)
이용을 제지 당함	5 (14.7%)	5 (11.6%)	10 (13.0%)
물리적 폭력을 당함	-	-	-
차별 경험 없음	16 (47.1%)	27 (62.8%)	43 (55.8%)
전체	34 (100%)	43 (100%)	77 (100%)

[표 115] 공중화장실 이용 시 차별 경험과 이용 포기 경험 : 트랜스젠더

단위:명(%)

	이용 포기한 경험 있음	이용 포기한 경험 없음	전체
차별 경험 있음	23 (67.6%)	11 (32.4%)	34 (100%)
차별 경험 없음	14 (32.6%)	29 (67.4%)	43 (100%)
전체	37 (48.1%)	40 (51.9%)	77 (100%)

차별 경험 무응답 N = 13
 $\chi^2 = 9.4$ $p = 0.002$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느냐 집단적인 문제를 보면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 화장실에 대한 차별이 경험 조사인데 트랜스젠더 44.2%가 화장실 이용하면서 차별을 경험을 겪었다.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 최근 5년 동안 화장실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똑같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남성이나 여성이어도 외모와 성별이 불일치하면 느끼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제 친구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면 남성처럼 보이지만 이름은 여성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같이 동아리에서 그 분이 화장실을 갈 때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친구들이 “OO아, 화장실 잘 갔다 와!”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여자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장실의 성별 분리가 갖는 문제

여탕에 들어간 트랜스젠더 '소동'

입력 2013.08.09 02:25 | 수정 2013.08.09 02:25 | 지면 A28

경찰, 경범죄로 2만원 스티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이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갔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주민등록상 '여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선처했다. 다만 돈을 내지 않고 목욕탕에 들어간 점에 대해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2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했다.

사실 이것이 건강관리 문제라고 나타나고 범죄와 이어집니다. 2013년 기사인데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탕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던 그래서 2만 원 스티커 발급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발제문에 있는데 작년 여름에 트랜스젠더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불일 보고 나오다가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와서 조사할 게 있다고 해서 체포된 거예요. 경찰에서는 엄청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들었죠.

그걸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관계 특별법에는 성적 목적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해요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없는 거고 불기소가 되기는 했었는데 사실 기소 불기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화장실 나오다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 대체 무슨 경우일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성별 분리가 갖는 문제.

화장실의 성별 분리가 갖는 문제

"아빠, 들어와" 난 여자화장실에 간다

[주경] 소수자들이 편견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 필요하다

16.06.16 21:36 최종 업데이트 16.06.16 21:36 글 미혼비(heepoonchawi) | 편집 김재지(jor23)

중요도 2개 | 크기 | 북마크 | 인쇄 | URL을 복사 | 스크랩

25 | 4

중요기사 원고로 보기



가족 화장실을 얘기했었는데 가족에서 아버지가 딸을 동반하는 반대 성별을 가진 가족을 동반 하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딸을 둔 아버지가 필요하다 느꼈던 거죠.

이거는 가족화장실 남, 가족화장실 여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남자 가족화장실과 여자 가족화장실이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의 성별 분리가 갖는 문제

인터뷰14 | 여성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장애남성 - 남성화장실 이용

장애남성 ▶ 남자화장실에서 여자가 (남성의 신변보조를) 하는 것 자체가 선입견이긴 하는데, 민망스러워서 그런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요. 이용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충분하고,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인식의 차이인데, 심리적 부담감이 느껴져요.

인터뷰16 | 남편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여성 - 화장실 이용 시

장애여성1 ▶ 남녀공용이 아니고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만 있을 경우에는 이성에게 활동보조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저에게 활동보조를 해주는 남편이) 중간에 이제 여자화장실 들어가기 불편하고 불안해하죠.

<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자료집, 2014 >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화장실도 임신부로 되어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경우 장애여성공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남편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장애 남성이 여성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어서 공용화장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이런 화장실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화장실에 줄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화장실의 성별 분리가 갖는 문제



명절 때 휴게소 보면 여자 화장실 길 줄게 서 있는 화장실 평등 문제라고 하는데 법규상으로 여성 화장실 변기는 남성 화장실 소변기 대변기 합한 거에 1.5배 이상 설치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안 지키는 경우도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던 게 좀 그런 게 그렇게 하니까 여자화장실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남자화장실을 줄이는 거예요. 소변기 몇 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5배가 맞춰지니까 다 같이 불편해지는 이상한 상황에서 오히려 성별 구분이 없이 했을 때 오히려 불편이 줄어든다 그런 차원에서도 굳이 성별 구분을 해야 하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그래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성중립화장실 가까운 얘기인데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는가.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 한 칸만 있는 화장실이라면 이건 성중립 화장실 성별 구분 없애면 되는 건데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까요.

방실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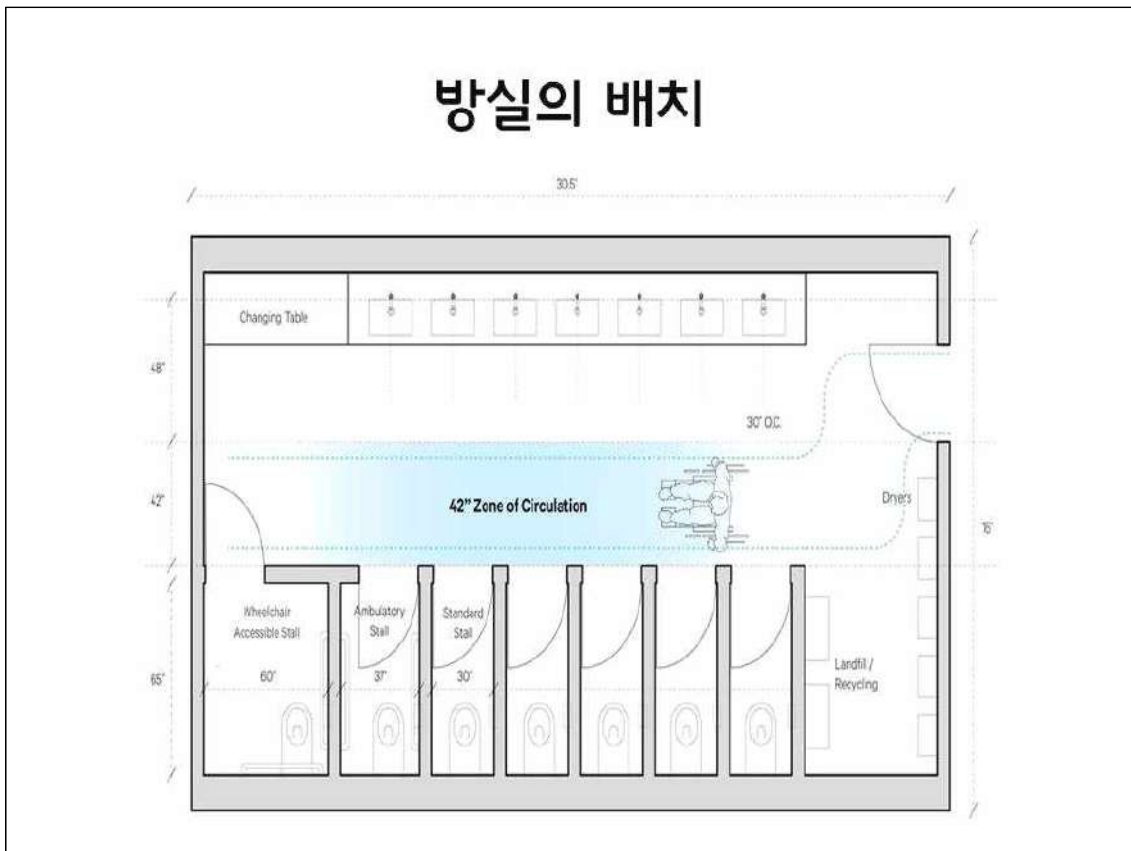


이게 미국 백악관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이거든요. 오바마 때여서 트럼프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마크가 트랜스젠더 마크를 쓰고 했고 방식이 여러 개 있는 칸칸이 있는 화장실이라면 개별칸을 동일하게 하고 문이나 이런 것들은 폐쇄형으로 해서 엇보거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있고요.

방실의 배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마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별 구분 없이 개별적으로 있는 화장실입니다. 관련된 사이트에도 나온 설계도인데 크기 자체는 못 미치는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 칸이나 보행자 칸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에 있어서는 성별 구분이 없다는 거지 성별에 대한 서로 다른. 그런 문제도 꽤 많이 생기거든요. 성별 구분 없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성별 구분해야 하는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다르거나 트랜스젠더 남성이 생리대가 없어서 허용할 수 없는 문제.

내부 구조



[그림 60] 일본 후추시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그림 61] 스웨덴의 성별 구분없는 화장실
(손잡이, 소아용 의자, 인공항문 세척기 설치)

남성 여성 구분해서 편의시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편의시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 이거는 일본의 후추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문제인데 성별 구분도 없지만 세척시설 있고 의자도 있고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있고 팔걸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분리? 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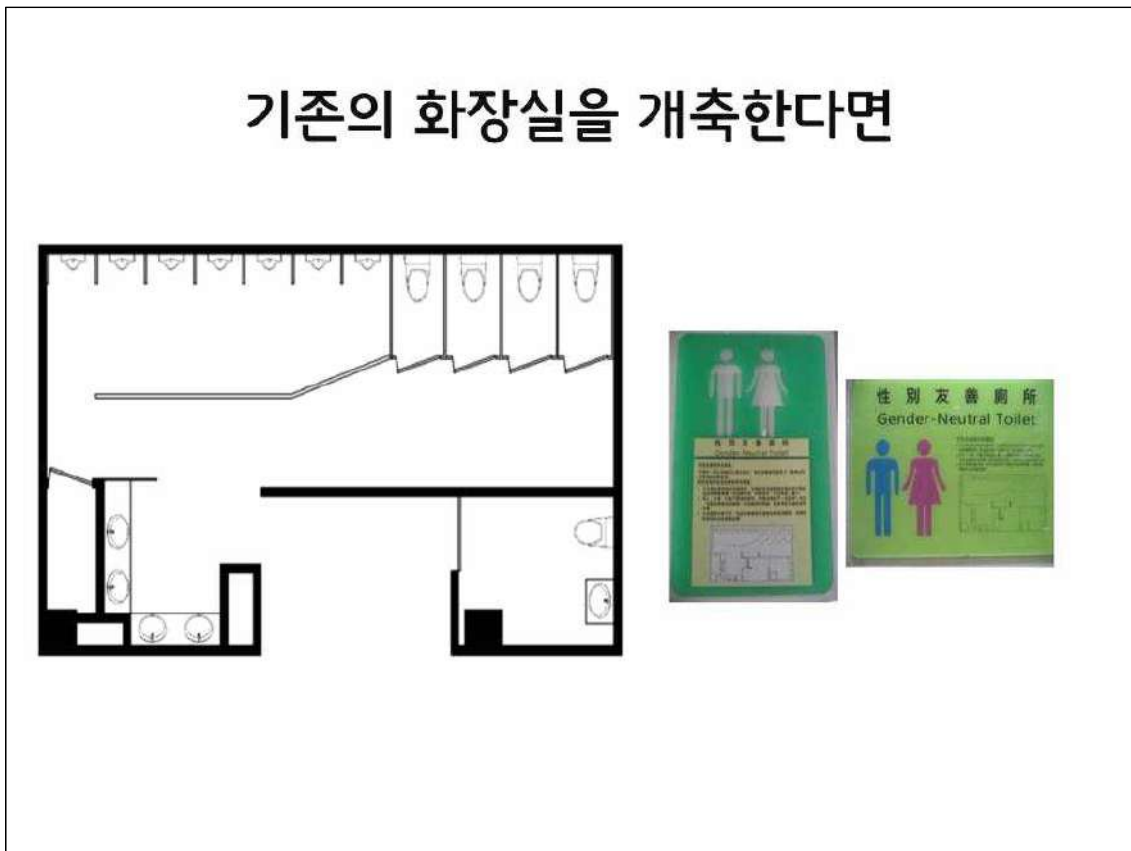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게 화장실을 성별 구분 별도로 둔 채 중립 화장실을 별도의 공간에 같은 층에서 놓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트랜스젠더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분리시키면서 또 다른 낙인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뉴욕 거리에 있는 화장실인데 남성, 여성, 공용 있으면 공용에 누가 들어가는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시부야에 있는 모두의 화장실인데 이 마크가 사실 당사자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사상이 있더라고요. 레인보우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면 레인보우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리고 극단적인 거는 태국은 많은 국립대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카토이라고 하거든요. 카토이만 쓸 수 있는 화장실. 남성 여성 카토이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카토이 화장실 분리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되게 문제가 있어요. 비판을 많이 하는 겁니다.



표지판에 있어서도 성별 구분 없이 한다는 건 표지판 어떤 의미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바지 치마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결국은 성별이 구분되어 있다는 자체에서 그다지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텍스트와 같이 변기 표시를 표시하는 이런 형태가 무난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지판의 형태는 다양해요.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형태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배제되는 감각을 주거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강화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기존 화장실은 사실 새로운 화장실을 짓는 건 그렇지만 지으면 좋겠지만 개축하는 여건상 새로 지을 수 없는 구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만국립과학원에 있는 화장실인데 새로 따로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지판을 이렇게 두고 설치하고 있는 기존 화장실을 개축하는 방식에서는 프라이버시나 이런 점들을 고려해 소변기를 칸막이로 가리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관한 해외의 법제와 사례

화장실 해외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나. 화장실 관련해서는 법 관련도 필요한 게 대부분의 건축법은 화장실을 분리하거든요. 플래밍코드라고 있는데 강제는 아닌데 국제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게 성별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많은 국가에서 성별 분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성별 분리 불법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법안 1732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4편 제15장 제2절에 다음과 같은 제5조를 추가한다.

- (a) 모든 사업장, 공공시설, 또는 주 및 지방정부의 단독 화장실은 캘리포니아 법규집 Title 24에 따라 모든 성별을 위한 화장실로 인정되어야 하고, 한 번에 1인 내지는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야 한다.
- (b) 검사원, 건축 또는 지방정무 공무원이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원 내지 공무원은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 (c) 본 조에 있어, '단독 화장실'이라 함은 하나의 대변기와 하나의 소변기를 갖추고 이용자가 안 쪽에서 문들 잠글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d) 본 조는 2017. 3. 1.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을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위에는 미국에서 상징적인 부분 인데요. 보건안전법에서 모델은 다 똑같대요. 화장실은 모든 성별 표지판을 없앨 것. 단독 화장실을 가면 대변기 소변기 모두 갖춰 있고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 발제문 52쪽 보시면 워싱턴 DC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자들은 성별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있어서 권리 보장해야 하고 모든 단독 화장실에서 성중립적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표지된 화장실 밑에 고쳐서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생 관련된 노동 관련된 부처에서는 거기에서는 트랜스젠더 화장실을 위해서 화장실을 포함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는데 트랜스젠더 뿐만이 아니라 단독 화장실 모든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 밴쿠버 조례 10908

건축물 건설 및 관련 문제를 규제하고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건축법을 채택하는 조례**

3. 7. 2. 2. (17)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 사업장, 가게, 산업체 등은 2개의 **성중립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다.

- a) 총 이용면적이 200m²이하일 것
- b) 총 이용인원이 60명 이하일 것
- c) 각 화장실 방실은 변기와 세면대를 갖추어야 하고
- d) 최소한 하나의 방실은 3. 7. 2. 10. (9)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7. 2. 11. **성중립화장실의 요구사항**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밴쿠버시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어요. 의무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 사업장 가게 산업체 등은 2개의 성중립 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용면적 200m 이하, 이용인원 60명 이하일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각 사업체 선택에 따라서 둘 수 있고 안 둘 수 있겠지만 두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일본

個別機能の分散配置を促進

多機能トイレへの利用者の集中を避けるため、施設の用途や利用状況を勘案し、障害者等に必要な各設備を個別機能トイレへ分散

多機能トイレ



必要な設備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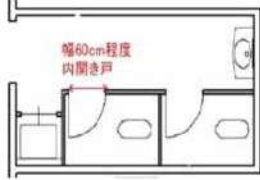
- ・車いす使用者
 - 回転スペース
 - 大型ベッド等
- ・オストメイト
 - 汚物流し等
- ・乳幼児連れ
 - 乳幼児用いす
 - おむつ交換台等


既存トイレのバリアフリー改修方法の充実

便房の数や配置の工夫等、効果的な改修を提案

改修前


- ・出入口幅が狭い
- ・戸が内開き





改修後

- ・出入口幅と回転スペースを確保
- ・引き戸にし車いすで進入可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편의증진법이 있어요. 노약자,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마련되어 있고 배리어프리 추진되고 있거든요.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어서 2020 배리어프리 추진 계획을 설립해서 화장실, 대중시설 이런 것들을 고치고 있는데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 성중립 화장실 생긴다 보도들이 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 배리어프리에서 다목적 화장실을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성별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정책 내에서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다목적 화장실인데 성별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만



入口處設置性別友善廁所視覺標誌 入口處設置廁所平面配置圖與說明 各廁間門扇上設置便器標誌

대만 같은 경우 관련법은 없기는 한데 아직 없지만 내무부에서 연구를 한 적 있었어요. 2016년도에 법 개선과 사례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만국립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교인데 모든 학사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2016년에 시작했었고 2017년에는 대부분의 학사에 변기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 구조를 설명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서는 안전 우려나 여러 가지 우려, 바뀌어야 하는 권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성별분리가 법제화 됐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원래 있었어요.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공중화장실 등의 법률이라고 공중화장실 법이 있었어요. 2004년에 제정이 됐었는데 제정 됐을 당시부터 여성 대변기 수는 남성 대소변기 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된다 되어 있고 1항이 추가가 된 게 화장실 줄 서는 것 때문에 1.5배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는 항상 있었고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관공서 화장실이나 대중교통 시설 화장실이고 그밖에 많이 사용하는 민간기업 회사 대기업 건물에 있는 회사에는 그전까지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화장실에는 의무조항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는 2000으로 줄어들었어요. 더 확대된 거죠. 건물 자체가 범위가 확대시킴으로써 또 하나는 국민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제안하는 시행됐는데 그중에 하나 포함된 게 민간 화장실 성별 분리사업 추진. 올해 시행되고 있고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지자체별로 신청을 하면 교통부가 지자체가 우리 화장실이지만 민간 화장실을 거기에서 지자체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화장실을 분리하는. 그런 반면에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있어서는 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분리해야 한다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죠.

이렇게 나온 꿈수가 장애인화장실은 성별 구분 없이 하나만 설치해 놓고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안 하는 거죠.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 비장애인 화장실 성별이 분리되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비장애인은 성별 분리가 처음부터 의무였지만 장애인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별 분리를 차등적으로 보고 장애인은 성별을 분리하지 않아도 법령 자체가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법이 있으니까 못 만드느냐. 성공회대학교에서 추진하면서 자문도 구하기도 했었거든요. 법 때문에. 일단 법 자체가 이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내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있네 시정하면서 내릴 수 있고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청구가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법규의 개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장실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발제문 마지막인데 법규는 결국 법규에 그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발제 마지막인데 사실 법규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토론회를 하는 것처럼 누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누가 화장실을 못 이용했었고 화장실이 왜 별개인지 인식이 될 때 법규 개선도 될 것이고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는
성별 분리된 공중화장실 이용 시,
이용 거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체포 당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는 “낙인찍힌 소수자그룹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낙인을 없애고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UN 안전한 식수와 위생 인권에 대한
특별 보고관**

- 권리로서의 화장실
- 평등해야 안전하다
- 상상력과 공감

그래서 이미 2011년도 UN 안전한 식수와 위생 인권에 대한 보고관이 이런 보고서를 냈었어요. 트랜스젠더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언어적 실제적 폭력을 당하거나 체포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장실은 권리라는 개념이고 화장실이 권리다. 권리로서의 화장실이고 결국 모두가 평등해야지 차별이 없어야지 안전할 것이라는 거고 실제 화장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하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 마치겠습니다.

지학: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들 그리고 예시들 한국에서의 법제화. 법이 현재 어떠한지 또 앞으로 어떤 이런 인식 자체가 국가에서 바뀐다면 어떤 수정도 필요하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게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 안에서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법은 바뀔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상상을 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고 편하고 안전한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생각들을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펼쳐가기 위해서 모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섯 명의 발제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토론의 시간과 보완, 보충의 시간, 의견 교환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가진 후에 토론 시간을 할 텐데 음식이 남아서 더 드시고 그다음 화장실 표찰 받으신 거 있으시죠?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표지를 하고 싶을 때 표찰 형식으로 만들었고 뒤에는 간략히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써 있습니다. 포스트잇 액션 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 붙여드렸는데 성별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밖에 없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시설에 말해주는 거죠. 필요하다고 액션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 온라인에도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는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액션까지 넣어드렸고요.

쉬는 시간 동안 검토해주실 게 책자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위치부터 안내도, 부속물들의 높이 그리고 보조손잡이 응급비상벨 영유아 시설이 있는지 활동 공간 바닥 비데 접이식 침대 자판기까지 어떤 것들을 갖췄으면 좋겠다 써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도 있으면 보시고 나눠줬으면 좋겠고 사전 질문 받은 거 답변 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신 후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 34분부터 10분 휴식)

질의응답 및 토론

Q&A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플로어 토론

진행 :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지학: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사전질문 부터 몇 가지 더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소수자 당사자와 성소수자의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 성교육 하시는 분들 활동가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채롭게 여러 의견들 나눠주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성소수자 부모님 세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성소수자 부모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알고 싶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남녀공용화장실과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연대와 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등 뭐든지 알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확히 알아야 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발언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공용화장실과 성중립 화장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열공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모님은, “대학생인 제 딸은 트랜스젠더입니다. 공공화장실 사용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성중립 화장실 둘러싼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이용 그리고 문화 형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하셨습니다.

혹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발제를 통해서 거의 다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이 질문을 다뤄야 할 내용있으실까요?

메이: 안녕하세요? 제가 저는 성소수자 부모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닉네임은 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제 질문 같습니다. 저희 애가 딸이고 현재 대학교 3학년 복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복학을 하고 나서 부모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화장실이더라고요. “너 화장실은 어떻게 다니니? 화장실 잘 다니고 있니?”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더니, 저희 애도 자기 전공 강의 듣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공하고 있는 같은 과 학생들은 다 아니까 그 건물에서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의도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과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내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드는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초중고나 대학 포함해서 우리나라 어떤 학교에도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정부나 국가가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등 그런 게 궁금합니다.

지학: 저부터 답변 드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시민들 차원에서는 모여서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지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설치하기 좋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 설치하며 모범을 보였다면 한국에서는 청와대, 국회, 서울 및 각 도시의 시청 등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곳에서 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치하기 쉬운 곳은 대학

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도 모든 건물 1층은 성중립 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1층에는 어느 화장실 들어가든지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죠. 한희쌤이 발제해주신 것처럼 대만의 대학교도 그렇다고 했고요. 의지만 있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들부터 빨리 할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들과 대학교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대학생들도 많고 우리 학교에도 설치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오늘 이 토론회에 80명이나 신청을 하셨고 사전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설치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현재 성공회대라든지 이화여대, 한양대 등 몇 군데에서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치가 된 곳은 없습니다. 학생회장이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이 되어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더 발언해주실 분 계실까요?

한희: 저는 고등학교 때는 남자 화장실 다니다가 성인 돼서 여자 화장실 다니는데요. 저도 사실 로스쿨 다닐 때 1학년 때는 법대 건물에 있는 화장실 안 썼어요. 법대 건물 화장실 안 쓰고 음대 건물에서 쓰거나 아니면 장애인 화장실이 법대 건물은 남녀 공용이어서 장애인화장실을 썼어요.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어서 여자화장실을 쓰기 시작하니까 불편하기는 했었어요. 지학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모범적인 시범사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먼 얘기는 합니다.

작년에 서울시인권회의 할 때 꽤 심도 있게 얘기했었거든요. 자문회의도 했었고 진행해야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성중립 화장실” 시범사업에 거부감을 보이는 공무원들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아, 모두를 위한 화장실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해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름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좀 더 그런 모두를 위한 다양성 얘기를 하는 것이 현재 행정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안했던 게 서울시청이나 서울메트로에서 관리하는 지하철, 강남역 대형화장실과 같이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관리가 잘되는 곳이나 서울시립대학교 화장실도 제안 했었고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인식조차 안 했으면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을 거 같아요. 안건이 올라왔다는 건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푸시하고 이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학: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의견이나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루인 쌤께서 다뤄주신 내용이기는 한데 트랜스 여성의 성범죄 혐오를 조장하고 가짜 뉴스를 들고 나온 세력에 대해서 잘 대응한 법을 알고 싶다고 하신 분이 몇 분 계셨고 여성의 안전 문제와 긴장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듣고 싶다.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다른 분들 의견을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즉 몰카 촬영과 유포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볼게요. ‘남성도 같이 쓰는 화장실이 생긴다면 몰카 설치를 더 쉽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중립화장실 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 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있지도 않은 성중립화장실을 없애거나 반대하면 몰카나 디지털성범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몰카와 디지털성범죄 없애고 싶으면 실제로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재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려를 하거나 다른 논의인데 그걸 끌어들이어서 반대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잘 찍히는 풀HD 디지털 몰카를 누구나 아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안경에 있는 거 나사에 있는 거 보조배터리 같이 생긴 거 화재경보기 같이 생긴 거 액자 같이 생긴 거. 별의별 것들을 30만원대로 다 살 수 있습니다. 찍어서 팔면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다는데 비싼 게 아니죠. 생산과 유통에서부터 막을 수는 없는데. 만약 생산과 유통을 막을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총기등록제처럼 특수카메라를 사는 사람들은 국가에 등록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 유통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 비추고 다니면서 이미 설치한 걸 잡아내려는 게 아니라 생산이나 유통부터 못하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몰카를 유발시키는 것도 아닌 성중립화장실을 몰카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이나 살인 같은 문제도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상상력이나 여유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의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이 나에게 위협 된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여성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 인권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각각 상충하거나 서로 싸워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여성인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실 분이나 트랜스젠더 여성을 성범죄자로 생각한다든지 혐오 주장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답변을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너무 황당한 뉴스라서 미루는 분위기인데요. 한 분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타리님 하시고 루인님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타리: 사실 발제하는 중에 좀 말씀드렸고 사실 뭐라고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인데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를.. 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정말 파고 들면 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공포와 편견에 기반 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불법촬영이라는 문제 자체가 너무도 압도적인 문제고 그것 때문에 화장실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역량이 개개인의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로 표출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김지학 선생님이 다 얘기해주셨는데 여성들을 두렵게 하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고 불법촬영을 유발시키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문제를 돌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을 계속 진지하게 다루는 게 좋은지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그들이 하는 주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

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어쨌든 여성들의 안전이나 여성들의 권리가 줄어들거나 위협적인 선동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의도적인 선동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트랜스젠더를 “팬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막 정치인의 입에서 혹은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어서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계속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고 저는 그 부분이 결국은 어떤 신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포를 정말 적극 활용을 해서 공포를 해결할 수 없도록 놓아두는 것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화장실에 대한 성적 목적의 접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별 규범을 위반했던 것 자체가 어떤 성적 만족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여장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커뮤니티 용어로 업을 하려고 여성화장실 와서 여성의 복장으로 갈아입으려고 여자화장실에 왔는데 그거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이것이 화장실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이상한 사람 여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장을 하는 것은 여자 화장실 기능이 아닌가? 기능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해요. 여자화장실이 적절한데.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화장실의 목적인가 아닌가. 기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군대 화장실에는 자위를 전제하고 안에 샤워기가 배치되어 있대요. 씻고 나오라고. 그런데 공중화장실에서 누가 자위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섹슈얼리티가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적절하고 어디에서 불법인가 얘기를 할 때 공중화장실에서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범죄이고 그것이 싫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질문 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떤 신체와 행위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공공질서에 안전의 문제로 구성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안전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안전의 문제로 너무나 과잉으로 포섭하는 것도 어떤 사람의 자유나 평등의 문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소수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논의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일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심지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처럼 화장실이 넘쳤을 때 그것을 바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하고 화장실 기능을 관리하는 거죠. 화장실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서 정말 성폭력 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화장실에서 누가 섹스를 할 때 가장 깨끗함과 안전함과 쾌적함을 상상할 수 있을까 화장실의 역량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면 아래위를 막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규범의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모두를 위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학: 저희가 어떤 막무가내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 할 때, 타리님은 ‘그래서 어찌라고??’라는 답변을 주신 거 같습니다. (웃음)

루인님 혹시 보태 주실 의견 있을까요?

루인: 타리님께서 좋은 말을 해주셔서 제가 보탬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관련 논의에서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각각 트랜스가 어떤 식으로 소환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재현되고 있는가가 사실 논쟁 지점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안전 때문에 트랜스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와 트랜스가 여성성을 강화한다는 논의에서 재현되는 방식의 트랜스와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트랜스 여성 모습에서 재현되는 방식이 간극들이 존재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특정논쟁지역이나 특정한 이야기에서 트랜스가 소환되는 방식이 어떻게 선별적으로 논의에서 비난하기 좋은 방식으로 소환되는 재단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때는 저런 모습으로 비난되고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과연 어떤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가 어떤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인지 자체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계속 다른 한편으로는 비슷한 얘기지만 왜 계속 이런 식의 안전을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할 때 트랜스라고 표현을 하며 들어와 있는가. 실제 트랜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계속 소환되고 위협적인 존재들을 계속 필요로 하는 것처럼 계속 소환하고 있는가. 왜 어떤 선별적으로 필요성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이야기할 때 안전이라고 하는 거 안전과 인권 그런 다 비슷한 말들인데 그 의미가 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야 나가야 하는 건데 이미 결정되어서 안전이 고정된 개념인가? 사실은 아무도 안전의 의미를 고정적으로 쓸 수 없고 안전이 각자의 감각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외국 사람들이 해외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안전하게 여기는가?

한국이 북한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르게 이해되고 정말로 다르게 논쟁하고 싸우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추출해낼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트랜스는 위험한 존재”라는 그 이야기 한마디에 모든 것이 중단되어버리는.. 더 이상 이야기도 안 되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규범이 안전을 주장하는 방식이 이야기되지 않는. 연결되어 이야기인데 따로 이야기하고 트랜스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처럼 트랜스가 어떤 식으로 필요성에 만들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타리 님처럼 말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은가 논의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

니다.

지학: 감사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떻게 계속 소환되고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실제로 어떤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의 문제인가 성폭력의 문제인가?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민들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생존자가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 알던 사람이 80%를 넘습니다. 초등학교 이하의 나이에서는 아는 사람이 90%입니다. 가해자가 될 만한 사람들 추방시키는 방식으로 성범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아는 사람’을 다 내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는 사람 대부분 한국사람이죠.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사회와 자기가 공격하는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크리스트 얘기해본 후에 사전 질문 주시지 않은 질문들 한 번 더 여쭙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보시면 화장실의 위치가 어때야 하는지부터 화장실 안내도가 어때야 하는지 필요한 부속물들과 높이 등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조금은 덜 필수적인 항목도 있을 것입니다.

리스트에 항목들을 얼마나 갖추었는지에 따라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성별 구분 없는 성중립화장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제가 써놓은 것처럼 정리가 저희가 했지만 더 추가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쉬는 시간 동안 읽어보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마이크 드릴게요. 성함이나 별명 그리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정: 성교육 단체 라라스쿨의 신연정입니다. 화장실 어벤저스 팀의 발제문을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동도 많이 받고 감상을 하면서 발제문 밑줄을 너무 굵다 보니까 발제문 전체 밑줄을 그을 것 같아서 포기 했습니다. 정말 좋은 발제문을 잘 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가’ 이런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희쌤께서 사실 이게 낙인 효과를 갖게 되거나 아우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했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김지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게 성중립 화장실이었어?”라고 하셨다는 동지 형의 입장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 때 연수 때문에 잠시 해외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제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 있던 층에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처음에 사용할 때 왜 표시가 없지? 한 달 정도 사용하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때 당시에는 인식이 없었지만 차차 인권에 대한 공부하고 활동을 하면서 ‘아, 그게 성중립 화장실이었구나’ 뒤늦게 알게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해 봤을 때 너

무 이상적이고 아름답기만 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성중립 화장실이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다’ 표시를 하는 게 아까 소장님께서 장애인 화장실 자체를 따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면 차별적인 사회인 게 아닌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안타깝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나 장애인이 많은 권리를 누리거나 보장이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표시하고 필요성을 더 알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패배적인 사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화장실’로 표시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과 그래도 이런 표시가 필요한 목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학: 체크리스트와 브로셔를 연구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해드리면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 되는 성중립화장실 표시 중 하나가 동그라미 안에 세모만 있는 표시더라고요. 변기 그림도 없어요. 동그라미 안에 세모만 있고 그냥 레스트룸이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화장실’이라고만 써있는거죠. 저도 이번에 만든 브로셔에 가운데 변기 그림 빼고 동그라미와 세모 안에 ‘화장실’ 세 글자만 딱 쓰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알아보기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아직까지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나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나는 어디 화장실로 가야 해?’ ‘남자 화장실 어디 있어요?’, ‘여자 화장실 어디 있어요?’ 물어보지 않고 명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현재 단계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변기 그림도 넣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질문해주신 대로 저는 궁극적으로 “화장실”이라고 써있는 곳에 가면 누구나 자신이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에나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신 의도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체크리스트와 브로셔를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더 혹시 추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타리: 저는 표시는 이 화장실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안내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 들어가기 전에 상상할 수 있게 배치도나 이렇게 사인 대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학: 저는 사실 이 말씀하신 화장실 안내도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갔을 때 1층부터 모든 층별로 10층까지 어떤 화장실이 있는지 써있는 건물을 본 적이 있어요. 1층에 있는 성중립화장실에는 구성물들이 뭐뭐가 들어 있고 2층에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고 여자화장실에는 없다든지 화장실의 구성을 1층부터 10층까지 알리는 안내판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화장실로 가야할지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을 가장 사람들 보기 쉬운 1층 인포메이션 옆에 둔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희: 저도 앞에서 하신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궁극적으로 화장실이라는 게 과연 성별이나 장애여부 등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 공간인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된다면 화장실이라는 거 하나

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강릉역 화장실 보면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 배치가 다 그려져 있거든요. 어떤 칸이 차 있고 어떤 칸이 비어 있는지 다 쓰더라고요. 그런 게 모두의 화장실로 되어 있다면 누가 들어가 있고 누가 쓸 수 있고 그런 거까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알리는 게 불편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번에 여행을 갔었을 때 NHK 본사 화장실을 갔었는데 다목적화장실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는 NHK 성소수자를 신경 쓴다는 느낌이 오면서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기분 좋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불편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공간이 어떤 의미인가 등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학: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체크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더 있을까요?

메이: 저는 심지선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장애인 활동가 분들의 페이스북 게시물 등에서 보면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 때 장애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본 게시물을 예로 들면, 교보문고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서점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 좋은 광화문 교보문고의 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시설은 상당히 정말 잘해놨대요. 그런데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을 때 화장지에 손이 닿지 않아서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설은 정말 잘되어 있는데 시설물에 손이 닿지 않는 거죠. 또 거울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각도가 안 맞아서 거울을 볼 수가 없대요. 시설은 아주 보란 듯이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속물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발제할 때 제가 “탁상공론”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혀 당사자를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어놓고 승인을 받을 때 중증장애인 협회에서 말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시설은 모든 편의시설 화장실 포함해서 그 단체에서 다 승인을 했는데, 제가 돌 맞을 말인지 모르겠지만, 단체장들은 중증장애인인 분이 안 계세요. 팔도 쪽쪽 잘 올라가는 분들이고 수동휠체어 타고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뼈까번쩍하게 지어놓고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처리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 지금도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그 승인 제도를 독점을 하고 있어요. 발제 할 때 배리어 프리는 인증 지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부규정에 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등급이 우수/최우수/일반 이렇게 세 등급 되어 있었잖아요. 최우수 등급조차도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걸로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뒤에 인증지표 개선이 정말 시급하거든요. 편의시설 증진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증지표를 만들어놓은 건데 혹시 우리나라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효성 있게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 친구가 혹시 차미경 선생님 아니세요? 저도 오늘 그 게시물 봤어요. 그런 화장실도 비밀비재합니다. 정말.

메이: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에 거울을 달아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 거울을 전신으로 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학: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체크리스트에도 거울의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거나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속기 하시는 분이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분은 메이님이셨고 지금 방금 하신 얘기는 전신 거울 형태로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기울기 얘기는 체크리스트에 있는데 전신거울로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언해 주실 때 이름이나 닉네임 말씀해 주시고 속기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지선 선생님께서 BF인증도 기준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어야겠다. 인증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분이 넘었습니다. 30분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분 손드셨고 시간이 더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학: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속기사분이 안 들리셔서요.

우진아: 잘 들릴 거예요.

지학: 네.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아: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많고 다양한 유형별로 얘기가 잘 되어 있지만 청각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똑똑' 노크 소리를 듣기 어려워요. 불빛 등으로 어떤 칸이 비어있고 차있는지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번 체크리스트 보시면 세면기의 폭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유동성의 부분이 있다면 깊이감도 넓이감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올라가 손을 씻는데 밑에 깔아야지 손을 씻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깊이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학: 감사합니다. 방금 발언은 우진아 선생님입니다.

평화: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권 활동 카라에서 활동하고 평화 활동가라고 하고요. 저희가 동물권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인권과 동물권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을 활동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권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면서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쓰신 '모두를 위한 화장실' 글도 보고 거기에서 인용해서 책자에도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너무 좋은 토론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화장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 두 가지 하고 싶은데 하나는 저희 건물이 이미 지어졌고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될 수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너무 좁거든요. 다시 공

사를 하기에는 어렵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몇 명 활동가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5층 화장실은 올젠더 화장실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압도적으로 여성활동가가 많아서 다섯 개 층 중에서 여성 3개 층에서 화장실을 쓰고 남성이 1개 층에서 화장실을 쓰고 나머지는 올젠더 화장실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꿀 때 사실 여러 문제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올젠더’라는 명칭에 대해서 저는 다른 활동가 분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신 걸 보고 약간 ‘음?’하면서 가우뚱 한 게 있었어요. ‘올’이라고 하면 모든 젠더가 전부 다 되는 건데 ‘젠더 정체성’에 대한 것이라고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쓰임도 있는데 ‘올젠더’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디. ‘성중립’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떤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 궁금하고 ‘중립’이 한자로는 ‘가운데 서다’잖아요. 중성적인 거, 그럼 ‘이분법을 거부하면 중성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생기는 불편함은 ‘가운데 중’ 자를 안 좋아해서 불편함이 조금 있고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정한 화장실’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명칭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고요.

지학: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들어 본 후에 두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평화: 두 번째는 간단해요. 두 번째는 어떤 남성 활동가와 얘기를 하다가 소변기 설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남성들은 신체 구조상 소변기를 쓰지 않으면 불편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일단 그렇다나 ‘그렇군요’ 이렇게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로 그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지학: 일단 카라에서 나온 책자 너무 감동적으로 읽어서 정말 좋아했는데 작성하실 때 저희 글도 참조해 주셨다 해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용어나 올젠더 화장실 아까 말했듯이 결국은 “레스트룸”처럼 그냥 “화장실” 세 글자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올젠더나 성중립에서 에이젠더가 포함되는 것이나 혹은 젠더리스도 포함되는 것이나 어떤 성별 정체성이든 다 포함되는 것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을 수 있겠죠. 결국에는 아까 논의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화장실이라는 글자만 봐도 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 화장실에는 어떤 구성물들이 들어 있는지 표시되면 좋겠다는 것과 이어지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앉아서 소변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뺑입니다. 똥쓸 때 오줌이 나옵니다, 그죠? 오줌만 따로 싸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거짓말입니다. 전혀 거짓말입니다. ‘앉아서 싸면 남자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자존심을 오줌 쓸 때 찾습니까? 오줌을 서서 싸면 오줌이 다 튕니다. 오줌만 튀는 게 아니라 변기에 있는 대장균이나 각종 세균들이 2m까지 올라온대요. 내 코로도 직접 들어오고 화장실 공기 안에 가득 차고 문 열면 거실로 침실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서 소변 볼 때도 앉아서 싸

야 합니다. 브로셔에도 앉아서 이용하는 화장실이라고 표시해 두라고 안내해 났습니다. 저는 앉아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추가로 의견 있으시면?

한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섹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유럽 쪽에서 ‘올젠더’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발제문에 보시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국립과학교육원에는 ‘올젠더’로 되어 있고 대만 국립대학교도 되어 있고 한자로 번역하면 성별우선처소라 하죠. 저는 뭐 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듯해요. 올젠더로 했을 때 젠더들을 특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결국 화장실일 뿐인데 그게 젠더에 따라 구분이나 성별에 따라서 구조를 다르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그런 표시가 필요 없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 경험상 말씀드려도 소변은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발제문 50쪽에 보시면 소변기에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중립화장실로 만든다고 해도 소변기가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기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절수가 되서 물을 적게 쓰는 거죠. 환경을 생각하면 소변기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위생상으로도 대변기에다가 남성들이 서서 소변을 보면 더러워지니까 소변기가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하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지학: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발언 있으신가요? 30분 됐기 때문에 한 분 마지막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두 분 해도 될까요? 두 분만 하겠습니다.

나비: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궁금이 해소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모델이 너무 좋아 보이기는 한데 58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때 불안감이 꼭 ‘불법촬영’만 있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용하고 나왔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상대가 ‘남성’일 수 있잖아요. 아까 파우더룸 같은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떤 남성이 들어갈 때 내가 따라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손을 씻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뒤에서 나와서 같이 내 옆에서 손을 씻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공용화장실과 성중립 화장실의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남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사실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도 1차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아닐까요?

지학: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남성일 수도 있고 트랜스 여성일 수도 있고.. 공포와 안전에 대한 감각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제 생각에는 발제와 이전 질문에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에서 다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들으셨어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아 있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답변하고자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학: 그러면 다음 분, 네. 유리 님.

유리: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고요. 질문을 두 개 할게요. 첫 번째는 장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글로 말고 장애인 특수성 때문에 시각적인 자료라든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식의 자료가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 식의 다른 형태의 자료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는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이나 그림 형태로 보는 걸 좀 더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 미디어의 특성상 짧게 보고 넘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전에 편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트랜스젠더 등 여러 가지 이미지화 된 존재로만 여기고 혐오하기 위해서 소환되는 존재로서 여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루인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드는 의문이 제가 심리학 같은 걸 배우는데 거기에서 보면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A 식당이 B 식당이 있다고 하면 공통된 동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법적 제도 자체가 보장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 제도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을 무조건 내놓고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질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지학: 첫 번째 해주신 질문은 그림책이든 영상이든 다양한 매체로 접근하고 싶고 만들고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편딩을 더 따든지 더 많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브로셔에 회원가입서가 있습니다(웃음). 오늘 오신 분들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더 많은 더 좋은 자료로 잡아 뵙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동질성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는 너무 동일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장애인들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획일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수자들이 보이지 않고 소수자를 만날 기회도 적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제도도 미비하고 소수자들을 만날 기회도 없는 겁니다. 소수자들이 가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기 힘들고 법과 제도도 바뀌기가 힘든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고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 발언해 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실 분 계신가요?

타리: 나비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 앞으로 몇 년간 계속 토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사람 문제고 어떤 게 건축의 문제일지를 좀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 남성이 내 뒤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어쨌든 두렵고 낯설고 힘들다는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감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최소한 아까 화장

실을 정말 건물에서 제일 밝고 가운데 위치하고 손 씻는 공간 자체를 화장실 밖으로 빼서 완전히 노출된 곳으로 된다면 저는 공포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포를 누구에게 책임을 지을 건가, 누가 화장실에 못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정치의 책임으로 보낼 수 있는 건 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공포스럽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면 그 다음 논의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발자국 더 가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학: 감사합니다. 나비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또 한번 잘 마무리 발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한 시간보다도 더 늦게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소중한 주말 오후에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에 속기와 체크리스트 의견 주신 거까지 더 포함해서 좋은 자료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또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다양성 연구소
Diversity Korea

diversity.or.kr